

제주도(濟州道) 무당굿놀이 개관(概觀)

玄 容 駿

차 례

1. 머리말
2. 굿놀이의 기회(機會)
 - ① 기회(機會)로 보아
 - ② 규모(規模)에 따라
3. 굿의 준비(準備) 무장(巫裝) 무구(巫具)
 - ① 문점(問占)·택일(擇一)·정성(精誠)
 - ② 공물(供物)·공의(供儀)
 - ③ 기(旗) 및 지전류(紙錢類)
 - ④ 배 설(排設)
 - ⑤ 무장(巫裝)
 - ⑥ 무구(巫具)
4. 굿놀이의 형식(形式)
 - ① 굿놀이의 제차(祭次)와 그 개요(概要)
 - ② 분류(分類)와 형식적(形式的) 구성(構成)
5. 굿놀이의 요소(要素)
 - ① 언어적 요소(言語的 要素)(가악(歌樂))
 - ② 행동적(行動的) 요소(要素)(무용(舞蹈)·연극(演劇))
6. 무 격(巫 覡)
7. 결 어(結 語)

1, 머릿말

이번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지정자료(指定資料)로서 『제주도(濟州島) 무당굿놀이』를 조사(調查)하였는데, 그것은 『제주도(濟州島) 무당굿놀이』의 전체(全體)가 아니라 일부분(一部分)인 것이다. 즉(卽), 이번 조사대상(調查對象)으로 삼은 『시왕맞이』, 『삼공맞이』, 『세경놀이』, 『영감놀이』는 각각(各各) 무당굿놀이로서의 특성(特性)을 가지고 있어서 제주도(濟州道) 무당굿놀이의 전반(全般)을 이해(理解)하는데 대표적(代表的)인 것이 되겠기 이를 대상(對象)으로 정(定)한 것이다. 그러나, 이 4개(個)의 굿놀이는 역시(亦是) 전체(全體)의 일부분(一部分)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濟州道) 무당굿놀이의 전반(全般)을 이해(理解)하기 위해서나 여기 조사(調查) 수록(收錄)한 4개(個) 굿놀이의 실상(實相)을 이해(理解)하기 위해서나 굿놀이 전반(全般)에 대(對)한 해설(解說)을 첨가(添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濟州島) 무당굿놀이 전반(全般)에 대(對)한 개요(概要)를 기술(記述)하고자 한다.

2, 굿놀이의 기회(機會), 목적(目的), 종류(種類)

가, 기회(機會)로 보아

제주도(濟州島)의 무당굿은 그 굿을 하는 기회(機會)나, 규모(規模), 형식(形) 등(等)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분류(分類)할 수 있다.

먼저 굿의 기회(機會)로 보아 이를 분류(分類)하면 <일반(一般)굿>과 <당굿>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다. 일반(一般)굿이란 일반(一般) 가정(家庭)에서 생사(生死) 질병(疾病) 생산(生産) 등(等)을 관장(管掌)한 일반신(一般神)을 청신(請神)하여 기원(祈願)하는 굿으로서 개인적(個人的) 내지(乃至) 가족적(家族的) 의례(儀禮)라 할만한 것이요, 당굿이란 각(各) 촌락(村落)을 관장수호(管掌守護)하는 당신(堂神)에 대(對)해 기원(祈願)하는 굿으로서 사회적(社會的) 의례(儀禮)라 할만한 것이다. 전자(前者)는 대상(對象)인 신(神)이 전도적(全島的)으로 공통(共通)한 것이니만치 그 굿도 전도내(全島內)가 대동(大同)하나 후자(後者)는 각(各) 촌락(村落)마다 대상신(對象神)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례내용(儀禮內容)도 다르다. 이제 일반(一般)굿에 해당(該當)하는 의례(儀禮)의 종류(種類)와 그 목적(目的)을 열거(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기회(機會)	명 칭(名稱)	목 적(目的)
① 기 자(祈子)	불도(佛道)맞이	득남다산(得男多産)
② 생후 삼일(生後三日)	할망비님	무병양육(無病養育)의 기원(祈願)
칠일 백일(七日 百日)	비님	치병기원(治病祈願) 소규모의례(小規模儀禮)
돋	넋들임	치병(治病)(넋의 이탈(離脫)로 인(因)한 병(病)의 치료(治療))
질 병(疾病)	푸다시	치병(治病)(잡귀(雜鬼)의 병의(憑依)로 인(因)한 병(病)의 치료(治療))
	두린굿	정신이상자(精神異常者)의 치료(治療))
	시왕맞이	치병(治病)(중병(重病) 한명(限命)이 다 되어 있지 않은 병(病))
	영감놀이	치병(治病)(도깨비신(神)의 병의(憑依)로 인(因)한 병(病)의 치료(治療))
	칠성새남	치병(治病)(칠성맹을 죽임으로 해서 일어난 병(病)의 치료)
	칠성재	장명(長命)의 기원(祈願)
③ 가옥신축시 (家屋新築時)	성주풀이	목령구축(木靈驅逐) 초복(招福)
선박신조시(船舶新造時)	연 신	"
화 재 후(火災後)	불 짝 곧	화신구축(火神驅逐) 초복(招福)

기회(機會)	명 칭(名稱)	목 적(目的)
④ 어 업(漁業)	요왕맞이	풍어(豐漁)
	구물코사	신년풍어제(新年豐漁祭)
	어장굿(멜굿)	멸치잡이의 풍요(豐饒)
농 업(農業)	맹 감	풍요(豐饒), 피사초복(辟邪招福)
	문진칠갈이 (베롱갱이)	풍농신년제(豐農新年祭)
수 렷(狩獵)	산신(山神)놀이	풍수(豐狩)
	산신(山神)맹감	신년풍수제(新年豐狩祭)
도살업(屠殺業)	거무영청굿	시살(屍殺)의 풍요(豐饒)
⑤ 사 후(死後)	귀양풀이(시왕맞이)	사령(死靈)의 위무(慰撫)
	요왕맞이	익사령(溺死靈)의 위무(慰撫)

여기에서 보면 개인적(個人的) 의례(儀禮)의 기회(機會)는 출생전(出生前)의 기자(祈子)에서 탄생(誕生) 질병(疾病) 생업(生業) 신축(新築) 사망(死亡)까지 신년(新年) 또는 수시(隨時) 행(行)하고 있으며 그 목적(目的)은 ①은 다산(多産), ②는 모두 장수(長壽)를 위한 의례(儀禮)이고 ③은 벽사초복(辟邪招福)이며, ④는 생업(生業)의 풍요(豐饒),

●는 위령제(慰靈祭)다. 여기 초복(招福)이란 것은 결국(結局) 오복(五福)을 비는 것이며, 사령(死靈)을 위무(慰撫)하여 저승에 잘 보내는 것은 사령(死靈)이 잡귀(雜鬼)가 되어 저승과 이승 중간(中間)에 헤매다가 가족(家族)들에게 질병(疾病)등 화(禍)를 줄까 보아 하는 것이니 이도 역시(亦是) 상기(上記) 제(諸) 목적(目的)과 같은 것이 된다.

시기(時期)	명 칭(名稱)	목 적(目的)
정월(正月)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	신년(新年)의 초복(招福)
이월(二月)	영등제(祭)	우순풍조(雨順豐調) 해초류풍등(海草類豐登)
칠월(七月)	마불림제(祭)	신의청소(新衣淸掃) 우마증식(牛馬增殖)
구월(九月)	신마곡대제(新萬穀大祭)	추수가사제(秋收感謝祭)

다음 사회적(社會的) 의례(儀禮)라 할 <당굿>을 보면 이 당굿들은 각(各) 당(堂)마다 달라서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으나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될 수 있다.

여기의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도 따지고 보면 순수(純粹)한 감사제(感謝祭)라기보다는 새 곡식의 제물(祭物)을 공희(供犧)함으로서 신의(神意)를 유화(宥和)케 하여 새로이 복(福)을 내리게하는 예방적(豫防的) 수단(手段)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당굿>도 역시(亦是) 개인적(個人的) 의례(儀禮)의 목적(目的)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點)으로 보아 제주도(濟州島)의 무당굿은 신의(神意)를 유화(宥和)케 하고 악령(惡靈)을 구축(驅逐)함으로써 수부 강녕(壽富 康寧) 다산(多産) 등 인간(人間)의 기본적(基本的) 욕구(慾求)를 성취(成就)하려는 유목적적(有目的的) 공리적(功利的) 주적(呪的) 수단(手段)임을 이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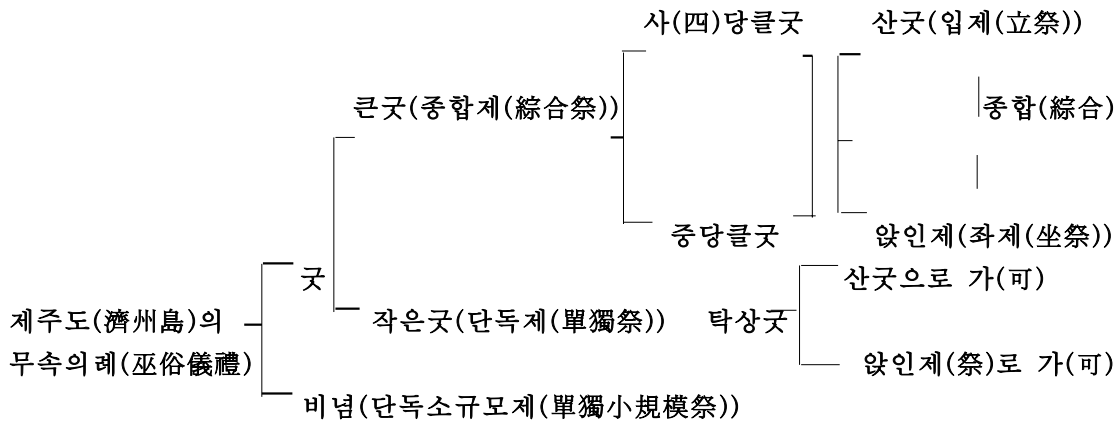
나, 규모(規模)에 따라

한편 제주도(濟州道) 무속사회(巫俗社會)의 관념(觀念)으로는 모든 무속(巫俗)의 의례(儀禮)를 그 규모의 대소(大小)에 따라 우선(于先) <굿>과 <비념>으로 나눈다. <굿>이란 무격(巫覡) 수인(數人)이 무악기(巫樂器)를 사용(使用)하여 하는 규모(規模)가 큰 의례(儀禮)이며 <비념>이란 무격(巫覡) 1인만으로 무악기(巫樂器)없이 하는 간단한 기원의례(祈願儀禮)다.

굿은 또 그 규모(規模)의 대소(大小)에 따라 <큰굿> <작은 굿>으로 나눈다. 큰 굿이란 전무구(全巫具)를 사용(使用)하고 모든 필요의례(必要儀禮)를 연속적(連續的)으로 다하는 일종(一種)의 종합의례(綜合儀禮)다. 따라서 큰 굿에는 무격(巫覡)이 최소(最少) 6인 이상(以上) 동원(動員)되어야 하며 대개(大概) 3일 이상(以上)의 시일(時日)이 소요(所要)된다. 이에 비(比)하여 작은 굿은 어떤 신격(神格) 하나에 대(對)하여 행(行)하는 단독의례(單獨儀禮)로서 대개(大概) 하루 안에 끝난다.

제상(祭床)의 배설(排設)은 큰 굿에는 <당클>(선반처럼 달아맨 제상(祭床)) 4개를 메어 하는 <사(四)당클굿>과 <당클> 셋을 메어 하는 <중당클굿>과 제상(祭床) 하나를 바닥에 차려서 하는 <탁상굿>의 경우가 있으나, 작은굿은 모두 탁상차림 <탁상굿>으로 한다. 이들 의례(儀禮)는 다시 무격(巫覡)의 의례집행형식(儀禮執行形式)으로 보아 <산굿(입제(立祭))>과 <앉인제(좌제(坐祭))>로 나눌 수 있다. <산굿>이란 무격(巫覡)이 서서 집행(執行)하는 의례(儀禮)요 <앉인제(祭)>란 앉아서 집행(執行)하는 굿이다. <산굿>에는 전악기(全樂器)가 울리고 춤이 따르나 <앉인제(祭)>에는 북과 장고만이

쓰이며 춤이 없다. 그러므로 큰 굿은 종합제(綜合祭)이니 <산굿>과 <앉인제(祭)>가 제차상(祭次上) 종합(綜合)된 굿이요 작은 굿들은 단독제(單獨祭)이니 크게 하려면 <산굿>으로 하고 아니면 <앉인제>로 해도 된다. 이상을 요약(要約)하면 표(表)와 같이 도시(圖示)된다.



이와같이 분류(分類)할 수 있는데 <큰굿>은 <작은굿>을 연속적(連續的)으로 집행(執行)하는 종합제(綜合祭)이니 제주도(濟州島)의 무속의례(巫俗儀禮)의 방식(方式)을 이해(理解)하는 데는 이 큰 굿을 시종(始終) 보면 된다. 그것의 각(各) 의례(儀禮)를 분할(分割) 독립(獨立)시키면 단독제(單獨祭)인 작은 굿이 되는 것이요 거기에는 모든 의례(儀禮)의 형식(形式)이 다 집행(執行)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주도(濟州島)의 무당굿을 이해(理解)키 위하여 큰 굿의 준비과정(準備過程)부터 간단히 살펴기로 한다.

3, 굿의 준비(準備)·무장(巫裝)·무구(巫具)

가. 문점(問占)·택일(擇日)·정성(精誠)

개인(個人)이 굿을 하게 되는 동기(動機)는 문점(問占)에서 시작된다. 본주(本主)(굿하는 집안의 주인(主人))는 집안에 환자(患者)나 또는 불운(不運)한 일이 있을 때 점자(占者)에게 가서 점을 친다. 그 점괘(占卦)가 신령(神靈)에 걸린 것이라 하면 <책 보는 이>(지관(地官) 택일(擇日)하는 이)에게 가서 길일(吉日)을 택(擇)하여 당골신방(神房)(무격(巫覡))에게 통고(通告)한다. 그래서 본주(本主)는 굿 날짜 3(日前)에 금줄(금승(禁繩))을 매고 부정인(不淨人)의 출입(出入)을 금(禁)하는 일방(一方) 정성(精誠)하며 공물(供物)을 준비(準備)한다. 정성(精誠)은 일종(一種)의 금기(禁忌)로서 일반적(一般的)으로 돈육식(豚肉食)의 금지(禁止) 성생활(性生活)의 금지(禁止), 시체(屍體)를 보거나 가까이 아니함, 뱀 고양이 따위의 시체(屍體)를 아니보는 것 등이 주(主)된 것이다.

나. 공물(供物)·공희(供犧)

여기 공물(供物)이라 함은 신령(神靈)에게 올리는 음식류(飲食類)와 폐백류(幣帛類)를 말함이고 공희(供犧)란 동물공희(動物供犧)를 뜻한다. 이 공물(供物)·공희(供犧)는 곳의 규모(規模)와 종류(種類)에 따라 다르나 종합제(綜合祭)인 큰 곳에는 작은 곳들에 필요(必要)한 것이 거의 소요(所要)되므로 큰 곳의 경우를 기술(記述)하려고 한다.

한 의례(儀禮)에 소요(所要)되는 공물(供物)은 신화상(神話上)에 규정(規定)되어 있는 해신(該神)의 식성(食性)에 따라 다르나 일반신(一般神)은 그 공물(供物)이 모두 공통(共通)하며 다만 당신(堂神)만이 돈육(豚肉)을 올리는 데와 금(禁)하는 데가 있다. 이제 일반적(一般的)으로 쓰는 공물(供物)을 열거(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류(飲食類)

- 백반(白飯)…각상(各床)마다 신위수(神位數)대로 올리고 저(著) 대신 향(香)가지를 깨어 쪄는다.
- 병류(餅類)…시루떡, 인절미, 골미떡, 병것떡, 솔편, 송편, 야냇래, 자냇래, 고달떡, 메밀적갈, 고리동반 등이 드는데 그 반수(盤數)는 신위수(神位數)에 따른다.
- 육류(肉類)…황육(黃肉)(우육(牛肉)) 일(一), 제숙(해어(海魚)) 삼(三).
- 미류(米類)…보신퓌(보시기에 쌀을 가득 넣은 것) 이(二), 삼곡마랑(三穀馬糧)(조, 보리, 쌀) 일, 차사양식(差使糧食)(쌀을 자루에 썬 것) 일(一), 영개양식(영혼량식(靈魂糧食)-쌀을 자루에 썬 것) 일(一) 그릇.
- 채류(菜類)…미역채,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채 등 제한 없음.
- 과일류(果類)…도실(桃實)을 제외(除外)하면 무엇이든 쓰는데 주(主)로 밀감(蜜柑), 비자(榲子), 사과, 배, 대추, 밤, 비자(榲子) 등.
- 화류(花類)…동백꽃 사발(불도(佛道)맞이 때에 점구(占具)로 씬) 이(二).
- 기타…주류(酒類)와 찬물(냉수(冷水))

② 폐백류(幣帛類)

이것은 주(主)로 신(神)의 직능(職能) 수행(遂行)에 필요(必要)한 포류(布類)와 신의 하강(下降)하는 다리(교(橋))용(用) 무명, 그리고 신(神)에게 사의(謝意)로 증정(贈呈)하는 포류(布類)(이를 역개 또는 보새, 보답이라 함)등인데 대개(大概) 무명이나 광목을 쓴다. 큰 곳에 소요(所要)되는 포류(布類)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이것들은 제차순(祭次順)에 따라 여러번 반복(反復) 사용(使用)한다.

문전 관세우수건	3.5척(尺)
문전 팔씩거리	3.5尺
세경 말머리수건	3.5尺
구들탁상 걸랫배	7 尺
차사상(差使床) 차사량식(差使糧食)자루	3.5尺
영갯상(床) 영개양식자루	3.5尺
불도(佛道)맞이 칠죽수건	3.5尺
초감계 만당보새	2.3尺
불도(佛道)맞이 할망다리	40 尺
칠원성군(七元星君)다리	23 尺
바랑끈	3.5尺

저승걸랫배	9 尺
일월(日月)맞이 일월(日月)다리	23 尺
일월(日月)맞이 걸랫배	7 尺
일월(일월)맞이 바랑끈	3.5尺
액막이 자치…기원자(祈願者)의 연령(年齡)만큼의 척수(尺數)	
차사(差使)다리	23 尺
영개다리	23 尺

다. 기(旗) 및 지전류(紙錢類)

기류(旗類) 방언(方言)으로 <기매>라 하여 신상(神像) 또는 신(神)의 장신구(裝身具) 등을 상징(象徵)하는 것으로 백지(白紙) 또는 색지(色紙)로 만든다. 큰 곳에 소요(所要)되는 <기매> <지전>류(類)를 열거(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통기(또는 번기)…신(神)이 하강(下降)한다는 큰대(장간(長竿))에 달아 세우는 것.
- 좌뒸기……큰대의 좌측(左側)에 세우는 것.
- 우뒸기……큰대의 우측(右側)에 세우는 것.
- 오방기(五方旗)……오방신상(五方神像)
- 오방각기……오방신상(五方神像)
- 칠성송낙……칠성신상(七星神像)
- 할망송낙……산신신상(産神神像)
- 성줏기……성조신상(成造神像)
- 체삿기……차사신상(差使神像)
- 영갯기……사령(死靈)의 신상(神像)
- 시왕기……십왕(十王)의 신상(神像)
- 칠성신상……칠성사신(七星蛇神)의 신상(神像)
- 요왕기……용왕(龍王)의 신상(神像)
- 요왕체삿기……용왕차사(龍王差使)의 신상(神像)
- 시왕지방기……십왕(十王) 지방(地傍)
- 삼시왕기, 감상기, 즐전지, 군문기, 당방지 등.

이상(以上)은 거의 제상(祭床) 위에 세우거나 병풍에 걸어 놓는 것으로 그 중 몇 개는 사람의 얼굴모양으로 제작(製作)하여 있다. 모두 신상(神像)인 듯하며, 제의(祭儀)가 끝나면 소각(燒却)한다.

- ② 발전지
- 살전지
- 지 전

이상(以上)은 모두 백지(白紙)로 만든 것인데 화폐(貨幣)를 상징(象徵)한 것이다.

- ③ 적배지…차사(差使)가 가지고 다니는 순서(順序).
- 철죽기…산신(産神)의 지팡이에 다는 것.
- 원살청풍채…무격(巫覡)이 들고 굿하는 부채.
- 수레멜망악심꽃…아령(兒靈)을 잡아가는 신(神)<구할망>의 꽃.
- 배…신(神)을 태워 송신(送神)하는 짚으로 만든 배.

④ 천군막, 책지, 비꿀장, 너울지, 나뭇기, 달래지, 살장, 연사초롱, 육괴비, 고리동반지, 성주꽃.

이상(以上)은 제단(祭壇) 또는 공물(供物)의 장식구(裝飾具)로 실제(實除)의 고급실내장치(高級室內裝置)를 상징(象徵)한 것이다. 모두 백지(白紙) 또는 색지(色紙)로 만들며 제의(祭儀)가 끝나면 소각(燒却)한다.

라. 배설(排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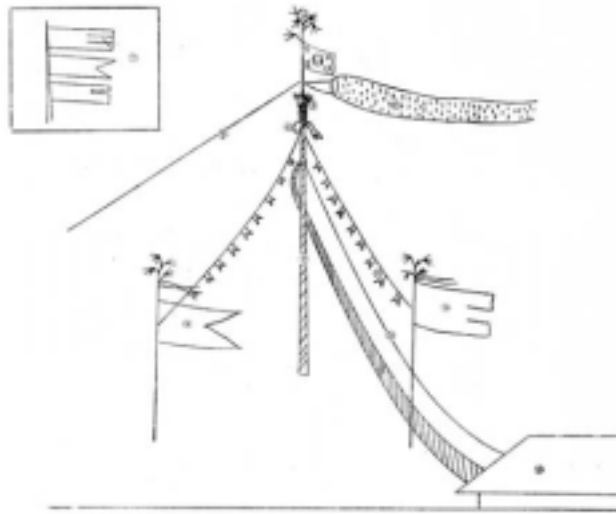
무격(巫覡)은 기(旗) 및 지전류(紙錢類)를 다 만들면 제상(祭床)을 배설(排設)한다. 배설(排設)은 첫째 뜰에 <대통기> 또는 <번기>와 <좌뒸기><우뒸기>를 그림 1과 같이 세운다. 이를 <큰대>라고 하며 이 장간(長竿)을 통(通)하여 신(神)이 하강(下降)한다고 관념(觀念)한다.

다음은 집안에 기본제상(基本祭床)인 사(四)당클을 그림 2와 같이 메는데 이것은 마루방의 사벽(四壁) 상부(上部)에 선반을 달아 메어 놓은 것이다. 그림의 <삼천전제석궁당클>에는 옥황상제(玉皇上帝) 이하(以下) <삼공신(神)>까지와 <세경신(神)>이 내리는 상(床)이며, <시왕당클>에는 십왕(十王)이내며, <문진본향당클>에는 문신(門神)과 촌락수호신(村落守護神)인 <본향(本鄉)>이 좌정(坐定)하며 <마을영신당클>에는 사후(死後) 3년이 지난 사령(死靈)들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십왕(十王)맞이를 시작하려는 수신방(首神房)

큰 대 (圖 1)



큰 대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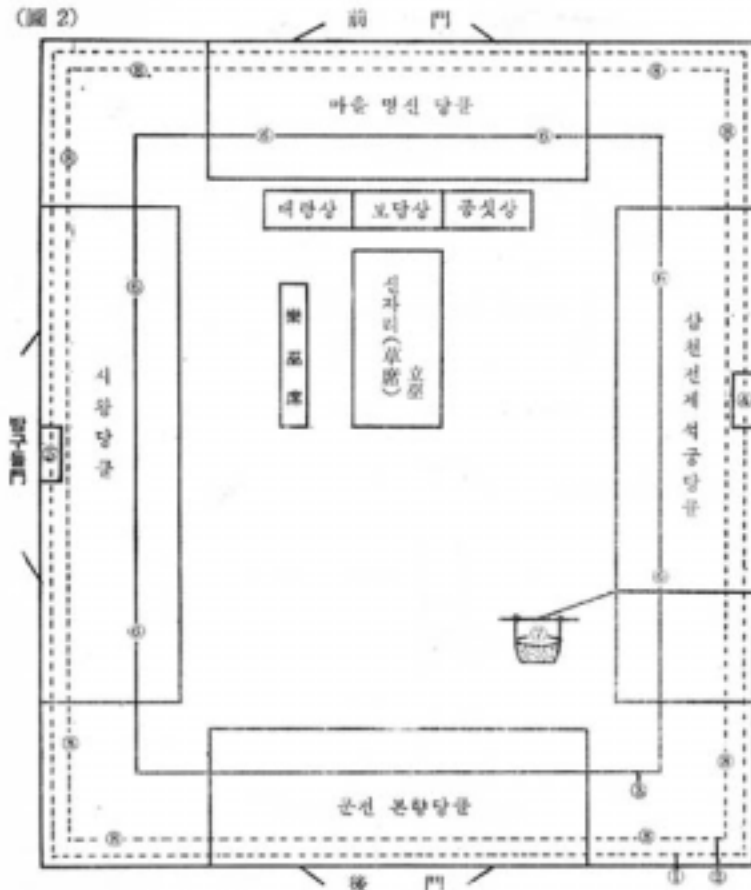
설 명(說 明)

- 장간(長竿)에 무명을감음
- 죽 엽 (竹 葉)
- 소나무 또는 동백을 묶음
- 등진거리(도포로 요령을 달아 맨 것)
- 상버리줄(지선(支線)임)
- 대통기(상상도(想像圖)임. 용(龍)모양을 본 딴 것이라하는데 근래(近來)는 쓰지 않고 대신 월덕기를 달아맨다)
- 월덕기(대통기 대신 근래(近來)에 달아매는 것)
- 좌뚝기
- 우뚝기
- 나부줄전기(나비모양의 백지(白紙)조각
- 신 줄
- 땃다리(긴 무명으로 집안의 제상(祭床)에 연결해 놓음)
- 집(제단(祭壇)을 설비(設備)한곳)

이 외(外)에 방구들에 <일월조상 상(床)> <차사상(差使床)> 산신(産神)인 <할망상(床)>을 별도(別途)로 차리며, 광, 부엌에 <칠성상(床)> <조왕상(床)>을 조그맣게 차린다.

이상(以上)이 모두 기본상(基本床)이 되며, 기본적(基本的) 의례(儀禮)(초감제, 각종(各種) 본풀이 등)는 이 당클 앞에서 행(行)하나 각종(各種) 맞이곳은 별도(別途)로 마당에 다시 맞이상(床)을 각각(各各) 차려서 독립의례(獨立儀禮)로 행(行)한다. 각(各) 상(床)의 제물(祭物) 배설방식(排設方式)은 유교식(儒敎式) 의례(儀禮)때와 대동 소이(大同小異)하나, 다만 상하위신(上下位神)을 동시(同時)에 청해 모시는 <맞이상(床)>, 이룰테면 십왕(十王) 맞이의 십왕(十王)과 차사(差使), 불도(佛道)맞이의 산신(産神)과 칠성신

(七星神) 등의 제상(祭床)은 2층으로 차려서 상하위신(上下位神)을 좌정(坐定)시킴이 특색이다. 일례(一例)로 <불도(佛道)맞이상(床)>을 도시하면 다음(그림 3)과 같다.



<圖 2>

설 명(說明) ● 책지(점선(點線)과 같이 줄을 매고 백지(白紙)를 두 개로 접은 책지라는 것을 연이어 붙임)

● 살장(점선(點線)과 같이 줄을 매고 백지(白紙)로 무늬를 돌려 만든 살장을 연이어 붙임)

● 연줄신줄(긴 무명을 매어 사면(四面)을 두른 것)

● 살전지(백지(白紙)또는 색지(色紙)로 오려 만든 기(旗)(신상(神像))류(類))

● 시왕기(창호지(窓戶紙) 2매(枚)를 붙여 만든 기류(旗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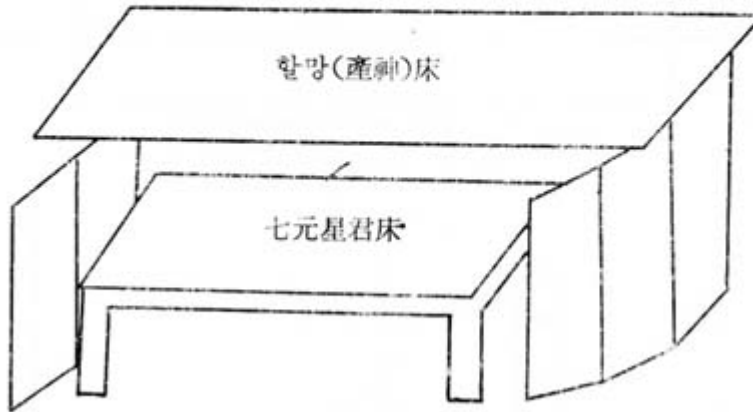
● 당반지(백지(白紙) 또는 색지(色紙)로 만든 기류(旗類))

● 세경상(농신(農神)의 상(床)인 채롱인데 →표(票)의 삼천전제석공 상(床) 밑에 달아냄)

● 줄전기(백지(白紙) 또는 색지(色紙)로 만든 기류(旗類))

이상(以上)의 제(諸) 기류(旗類)가 각(各) 제상(祭床)의 전면(前面)에 느리어 덮어 있음

불도 맞이 床의 構造 (圖 3)



군복 차림 (圖 4)



군복 차림 (圖 4)

마. 무 장(巫 裝)

배설(排設)이 끝나면 무격(巫覡)은 복장(服裝)을 차리고 무구(巫具)를 구사(驅使)하여 굿을 시작하는데 그 무복(巫服)의 차림과 의례관계(儀禮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복(巫服)의 차림은 대략(大略) 육종(六種)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 관디차림 ㉡ 군복차림 ㉢ 두루마기차림 ㉣ 평복(平服)차림 ㉤ 도포(道袍)차림 ㉥ 특수복(特殊服)차림이 그것이다.

㉠ 관디차림이란 신방(神房)의 정장(正裝)으로 두루마기를 입은 위에 적색(赤色) 매자(袂子)를 입고 그 위에 다기 황색(黃色) 관디를 입은 것이다. (그림 참조(參照)). 이 때는 남격(男覲)이면 공작(孔雀)깃이 달린 갓을 쓰고 행전을 치고 짚신을 신으며, 여무(女巫)의 경우는 행전이 없고 갓 대신 머리에 홍색(紅色)띠를 둘러 묶는다. 이 정장(正裝)은 굿 주문(注文)을 맡은 수신방(首神方)이 하며 큰 굿의 <초감제>와 각종(各種) <맞이굿>을 할 때 차리는 것이다.

㉡ 군복차림이란 정장(正裝)에서 관디를 벗고 갓 대신 송낙(고깔)을 쓴 복장(服裝)이다. 영혼(靈魂)의 <질치기>-저승에 가는 길을 치워 닦아 보내는 의식(儀式)때나 <석살림>, <보새감상>등 의식(儀式) 때에 이 복장(服裝)을 한다. (도(圖) 4) 특(特)히 질치기 때는 차사(差使)가 가지고 다니는 문서(文書)인 <적배지-적패지(赤牌旨)>를 등에 걸고 매달아 길을 닦는 의례행위(儀禮行爲)를 하며, <석살림> 때는 장삼(長衫)이라 해서 치마를 어깨에 걸쳐 맨다.

㉢ 두루마기차림은 군복차림에서 매자(袂子)를 벗어버린 복장(服裝)으로 큰 굿의 <상제-청신의례(請神儀禮)> 때나 작은 굿인 <얕은 제(祭)> 때에 입는다.

㉣ 평복(平服)차림은 어떤 복장(服裝)이라도 좋은 것인데, <추물공연>이나 <본풀이> 또는 자그마한 단독제(單獨祭)인 <비념> 때에 한다.

㉤ 도포(道袍)차림은 단독(單獨) <불도제> <칠성제(七星祭)> 때의 차림으로 도포(道袍)를 입고 갓을 쓴 복장(服裝)이다.

㉥ 특수복(特殊服)차림이란 의례(儀禮)가 극적(劇的)인 것일 때 그 배역(配役)에 알맞는 복장(服裝)을 차리는 것을 뜻한다. 가령 <성주풀이> 때에 <강태공서목시>역(役)의 신방(神房)이 노동복(勞動服) 차림에 도끼를 메고 톱을 들고 하여 목수의 모습으로 차리는 것이나 <삼공맞이> 때에 장님거지로 흰옷을 차리는 신방(神房)과 같은 것이다.

바. 무구(巫具)

제주도(濟州島)의 무구(巫具)는 무점구(巫占具)와 무악기(巫樂器) 두 가지로 나누인다.

무점구(巫占具)에는 순수(純粹) 무점(巫占)에만 쓰이는 <신칼>과 <산판>이 있고 기원시(祈願時)의 반주악기(伴奏樂器)를 겸(兼)하고 있는 <바탕>이 있다.

① 신 칼

한 자 미만(未滿)의 자그마한 칼에 백지(白紙) 조각의 끈이 달려있는 것으로 <신칼> 또는 <멩두칼>이라 한다. 이 칼은 기본무구(基本巫具)로서 신방(神房)이 굿을 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가지고 다니며 무점구(巫占具)로 쓸 뿐만 아니라 잡귀(雜鬼)를 쫓아낼 때에 환자(患者)의 육체(肉體)를 찌르는 시늉을 하여 구축(驅逐)하기도 한다. 이 칼로 하는 점법(占法)은 신방(神房)이 칼끈을 쥐고 칼을 내던져 두 개의 칼날의 방향(方向)을 보아 길흉(吉凶)을 판단(判斷)하는 것이다. 칼날이 한 쪽으로 나란히 누우면 길(吉)이고 칼날이 서로 마주 향(向)하거나 칼등이 맞서면 흉(凶)이다.



무가(巫歌) 가창(歌唱)의 사이에 춤을 추는 신방(神房)

② 산 판

이 산판에서는 두 가지가 포함한다. 하나는 직경(直經) 4.5리(裡)의 엽전(葉錢) 모양의 동판(銅版)에 <천지문(天地門)> 또는 <천지일월(天地日月)> 등 소박(素朴)한 문자조각(文字彫刻)이 있는 것이며 타(他)는 자그마한 동제(銅製) 술잔이다. 전자(前者)를 <천문> 또는 <계천문>이라 부르며 후자(後者)를 <상잔> 또는 <모욕상잔>이라 한다. 이 <천문>과 <상잔>이 각각(各各) 두 개씩 등그린 잔대(盞臺)에 놓이는데 이 잔대(盞臺)를 <산때>라 하고 그 전체(全體)를 가리켜 <산판>이라고 한다.

이 산판도 순수(純粹) 기본무점구(基本巫占具)로 쓰이며, 점법(占法)은 이 <천문>과 <상잔>을 내던져 그것들의 전패(顛沛)로써 판단(判斷)한다. 그에 대(對)한 해석(解釋)은 경우(境遇)에 따라 다르나 대체(大體)로 자빠진 것이 길(吉)이고 엎어진 것이 흉(凶)이다.

③ 바 람

이것은 <바라>인데 지금은 낫사발 두쌍 두 개로써 대용(代用)하는 이가 많다.

이바라는 <석살림>이나 <불도맞이>, <일월맞이> 등 불교색채(佛敎色彩)가 짙은 의식(儀式)에서 기원(祈願)을 할 때에 신방(神房)이 양 쪽 손에 잡아 쟁쟁 울리며 기원(祈願)한다. 동시(同時)에 무점구(巫占具)에도 쓰이니 신방(神房)은 그 전패(顛沛)로써 신의(神意)를 판단(判斷)한다. 그 해석(解釋)은 패(沛)가 길(吉)이요, 전(顛)은 흉(凶)이다.

이 외(外)에 기본점구(基本占具)에 쌀알로 점치는 <제비> 미점(未占)이 있다.

다음 무악기(巫樂器)로서 기본적인(基本的)인 것을 든다면, ● 징[정(釘)] ● 북[고(鼓)] ● 장고(杖鼓) ● 설쇠(쟁가리)등이 있고, 악성(樂聲)이 청신(請神)의 방편(方便)이 되는 일종(一種)의 청신악기(請神樂器)로서 요령(搖頷)이 있으며, 악성(樂聲)이 기원(祈願)의

방편(方便)이 되는 기원악기(祈願樂器)로서 <바랑>이 있다. 이<바랑>은 동시(同時)에 점구(占具)도 됨은 위에서 말했다.

● 징

동계(銅製)의 큼직한 대야인데 이를 <징> <대양> <울징>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이 <징>은 <북>과 <설쇠>와 더불어 춤의 박자를 맞추는 악기(樂器)로 쓰인다. 또한 <징>은 <십왕(十王)맞이>때 기원제차(祈願祭次)인 <방광침> 때에 그 소리를 울리며 기원(祈願)하기도 한다.

● 북

<북> 또는 <울북>이라고 한다. 북이 단독(單獨)으로 쓰일 때는 작은 곳인 <안은제(祭)> 때에 장고(杖鼓)대신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는 <오리징> <상계> <새다림> <담불> <서우젯소리> 등(等) 가요(歌謠)의 가락이 비교적(比較的) 정연(整然)하고 춤이 따르는 <큰 곳>의 재차(祭次)에나 <탁상곳>인 <작은곳> 때에 장고(杖鼓)와 같이 병용(併用)한다.

● 설쇠

이것은 쟁가리로서 이것만 단독(單獨)으로 사용(使用)할 때에는 없고, <징> <북>과 더불어 무용의 박자악기(拍子樂器)로만 쓴다.

● 장고(杖鼓)

주(主)로 큰 곳의 <본풀이> <추물공연>이나 작은 곳인 <탁상곳> 때에 신방(神房)이 앉아서 노래하며 친다. 상기(上記)의 북과 병용(併用)해야 할 경우도 장고만을 가지고 해도 된다.

● 요령(搖鈴)

요령(搖鈴)은 악기(樂器)라기 보다 차라리 청신구(請神具)라 함이 마땅한 기구(器具)이다. 신(神)을 청(請)하려고 <군문=신역(神域)의 門>을 열 때에 이 요령(搖鈴)을 흔들어 소리내기 때문이다.

● 바랑

바랑이 주(主)로 불교색채(佛敎色彩)의 의식(儀式)에서 기원악기(祈願樂器)임과 동시(同時)에 점구(占具)로 쓰임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이상(以上) 일별(一瞥)한 바와 같이 제주도(濟州島)의 기본무악기(基本巫樂器)는 <징> <북> <장고> <설쇠>의 4종(種)이며 기타(其他)는 청신(請神) 또는 기원악기(祈願樂器)였다. 기본악기(基本樂器) 4종(種)을 무속사회(巫俗社會)에선 <연물>이라 하며, 4종(種)이 전부(全部) 갖추어지면 이를 <ㄹ진연물>(갖추어진 악기(樂器)의 뜻)이라 부른다. 종합제(綜合祭)인 <큰곳>에는 <ㄹ진연물>이 있어야 하며, 작은 곳인 <탁상곳> 때에는 북과 장고만이 소용(所用)된다. 이 북과 장고가 울릴 때에는 무가(巫歌)의 창(唱)이 있을 뿐이요, 전악기(全樂器)가 울릴 때에는 가창(歌唱)은 없고 춤만이 있다. 그러므로 북과 장고는 반주악기(伴奏樂器)요, 징과 설쇠는 춤의 박자악기(拍子樂器)라 할 수 있다.

4, 굿놀이의 형식(形式)

가, 큰 곳의 재차(祭次)와 그 개요(概要)

큰 굿은 단독제(單獨制)인 작은 굿들을 신(神)의 계위순(階位順)으로 연속(連續) 집행(執行)하는 종합제(綜合祭)이므로 제주도(濟州島)의 무당굿의 실상(實相)을 이해(理解)하는 데는 이 큰 굿의 방식(方式)을 알면 된다. 그러기에 이하(以下) 큰 굿의 제차(祭次)와 그 내용(內容) 개요(概要)를 약술(略述)하기로 한다.

① 초감제…

신방(神房)은 제상(祭床) 배설(排設)을 다하면 초감제 제차(祭次)부터 굿을 시작한다. 초감제란 청신(請神)의 의식(儀式)이라 전악기(全樂器)가 울리기 시작하면 정장(正裝)한 수신방(首神房)이 사배(四排)를 하고 무가(巫歌)를 창(唱)하고 춤을 추며 의례(儀禮)를 집행(執行)해 나가는데 이 초감제는 6단계(段階)의 소제차(小祭次)로 나누어 그 내용(內容)을 설명(說明)할 수 있다.

● 배포도업침…신방(神房)은 천지혼합(天地混闔)으로 부처 우주개벽(宇宙開闢), 일월성신(日月生辰)의 발생(發生), 중국(中國) 한국(韓國)의 산수(山水), 국토(國土)의 형성(形成), 국가(國家), 인물(人物)의 발생(發生) 등 지리(地理) 역사적(歷史的) 사상(事象)의 발생(發生)을 차례 차례 노래해 나간다. 이 자연사상(自然事象)의 발생(發生) 가창(歌唱)을 <배포친다>고 하고 인문사상(人文事象)의 발생가창(發生歌唱)을 <도업친다>고 하는데, 이는 굿하는 장소(場所)를 신(神)에게 해설(解說)하여 바치기 위하여 우주(宇宙)까지 확대시켜 설명(說明)을 시작하는 것이다.

● 날과 국 섬김…위의 우주(宇宙)에서부터의 자연(自然) 인문사상(人文事象)의 해설(解說)이 점점 좁혀져 굿하는 장소(場所) 곧, 제주도(濟州島) 어느 면(面) 어느 마을 어디의 지리적(地理的) 해석(解釋)과 굿하는 날자를 노래한다. 이 대목을 <날과 국 섬긴다> (날짜와 국(國)을 사된다는 뜻)고 하는데 여기서 신방(神房)은 신(神)에게 굿하는 일시(日時) 장소(場所)를 전부(全部) 고(告)한 것이 된다. 마치 유식의례(儒式儀禮)의 축문(祝文)이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모일(某月某日)…감소고우(敢昭告于)>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집안연유 닦음…굿하는 날짜, 장소(場所)의 설명(說明)에 이어서 굿하는 집안의 굿하는 사유(事由)를 노래하고 강신(降神)하시기를 청(請)한다.

● 군문열림…신(神)이 하강(下降)하려면 신궁(神宮)의 문(門)을 열어야 할 것이므로 이 대목은 신궁(神宮)의 문(門)을 여는 과정(過程)인데 신방(神房)은 가창(歌唱)과 난무(亂舞)로써 신궁문(神宮門)을 연 후 무점(巫占)으로써 개문여부(開門與否)를 판단(判斷)하여 제주(祭主)에게 신의(神意)를 전달(傳達)한다.

● 새다림…신궁(神宮)의 문(門)은 열었으니 이제는 신(神)의 하강(下降)하는 길의 모든 사(邪)를 쫓아 내어 깨끗이 해야 한다. <새다림>이란 <사(邪)쫓음>의 뜻인데 신방(神房)의 노래는 <사(邪)가 <새>로 와전(訛傳)되어 모든 조류(鳥類)를 쫓는 내용(內容)으로 부르고 있다.

● 오리정…神의 하강로(下降路)의 사(邪)를 쫓았으니 이번은 제신(諸神)을 모두 청(請)해 들이는 과정(過程)이다. 신방(神房)은 소위(所謂) 일만팔천신(一萬八千神)이라는 그들의 신명(神名)을 일일이 부르며 모두 오십사는 내용(內容)의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하강여부(下降與否)의 무점(巫占)과 신의전달(神意傳達)이 있다. 신의판단(神意判斷)은 오로지 무점(巫占)에 의존(依存)하며 이하(以下) 각(各) 제차과정(祭次過程)마다 반복(反復) 행(行)해진다.

이상(以上)으로써 <초감제>는 끝이 난 것인데, 이 기다란 노래와 춤의 과정(過程)을

요약(要約)하면 결국(結局) <언제> <어디서> <무슨 까닭으로> <누가> <곳을 하여 신(神)을 청(請)하렵니다>하고 <신궁문(神宮門)을 열고> <하강로(下降路)의 사(邪)를 쫓고> <모든 신(神)은 오십시오>하는 언어적(言語的) 서술중심(敘述中心) 청신(請神)의 의식(儀式)이다.

② 초신맞이

초감제가 끝나면 초신맞이를 한다. 이것도 청신(請神)의 의식(儀式)이다. 소제차과정(小祭次過程)은 위의 초감제와 꼭 같다. 소위(所謂) 1만(萬)8천(千) 신(神)을 모두 청(請)해들이는데 빠진 신(神)이 없이하려는 의도(意圖)에서의 반복(反復)이다.

③ 초상제

역시(亦是) 청신(請神)의 의식(儀式)으로 소제차(小祭次)는 초감제와 같다. 미참(未參)한 神이 있을까 하여 청신(請神)을 반복(反復)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면 모든 신(神)은 하강(下降)하여 좌정(坐定)하는 것이다.



거지부부(夫婦)의 대화장면(對話場面)

④ 추물공연

신(神)을 청(請)하여 좌정(坐定)시켰으니 이제는 차려 놓은 음식(飲食)을 잡수심사 하여 권하고 기구사항(祈求事項)을 간절히 비는 과정(過程)이다. 신방(神房)은 앉아서 장고를 치며 제상(祭床)에 차려 올린 음식류(飲食類)를 일일이 호명(呼名)하며 잡수심사고 노래한 후 모든 복(福)을 내려 주시도록 빈다.

⑤ 석살림

음식(飲食)을 대접한 후(後)이며 이번은 신(神)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신방(神房)은 노래와 춤으로서 향촉(香燭)을 올리고 주잔(酒盞)을 권(勸)하고 모두 즐거이 춤을 추어 놀며 기원(祈願)한다. 추물공연은 사설위주(辭說爲主)인데 여기서 무용(舞蹈)이 주(主)가 된다.

⑥ 보세감삼

신(神)에게 폐백(幣帛)과 증물(贈物)을 바치고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신방(神房)은 폐백(幣帛)인 무명으로 손목을 뽕뽕 묶어 놓고 이것이 제주(祭主)의 죄(罪) 때문이라 하고 모든 죄(罪)를 풀어 주십시오 기원(祈願)하여 묶인 손목을 풀고 폐백(幣帛) 기타(其他)를 신(神)에게 바친다. 여기서 신방(神房)과 제주간(祭主間)에 대화(對話)와

연극적(演劇的) 행동(行動)이 주(主)가 된다.

이상(以上)으로써 기본적(基本的)인 제의(祭儀)는 끝이 난 것이다. 곧 모든 무신(巫神)을 한 자리에 청(請)해 들이고 종합적(綜合的)인 기원(祈願)이 끝난 것이다. 여기까지를 모두 합쳐 <초감제>라 부른다. 다음은 각(各) 신(神)에 대(對)한 개별적(個別的)인 의례(儀禮)를 별도(別途)로 제상(祭床)을 차려 신(神)의 계위순(階位順)에 따라 차례 집행(執行)한다.

⑦ 불도맞이

개별의례(個別儀禮)로서 처음하는 곳은 <불도맞이>다. 불도맞이는 산신(産神)을 맞아들여 기자(祈子)하는 의식(儀式)이다. 소제차(小祭次)의 진행(進行)은 다음과 같다.

● 초감제...위의 초감제 즉(卽), <배포도엮치고> <날과 국 섬기고> <집안연유 닦고> <군문열고> <새다리고> <오리정> 한 후(後) 이어서 <추물공연>을 한다. 여기의 <오리정>은 모든 신(神)을 전부(全部) 청(請)하는 것 아니라 산신(産神)만을 오십 사고 청신(請神)한다.

● 수록침...불교색채(佛敎色彩)의 기자의식(祈子儀式)이다. 산신(産神)을 청(請)하여 좌정(坐定)시켰으니 승려(僧侶) 차림의 무격(巫覡)이 불교의식적(佛敎儀式的)으로 자식(子息) 내려주시기를 기원(祈願)하는 것이다.

● 할망질침...<할망>이란 <산신(産神)>을 일컬음이요, <질침>이란 길을 치워 닦는다는 뜻이다. 곧 산신(産神)의 하강로(下降路)를 치워 닦아서 신(神)의 하강(下降)함을 맞아들이는 과정(過程)을 무용(舞踊)과 연극적(演劇的) 행동(行動)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 악심꽃질침...악심꽃이란 어린아이를 저승으로 잡아다 아령(兒靈)을 관장(管掌)하는 <구할망>신(神)이 차지한 꽃이다. 이 꽃을 꺾어 치우고 산신(産神)의 꽃을 따다가 제주(祭主)에게 주어 회태(懷胎)토록하는 과정(過程)을 연극적(演劇的)으로 집행(執行)하는 의식이다.

● 상단숙여 소지(燒紙)살음...산신(山神)에게 소지(燒紙) 올리고 기원(祈願)하는 과정(過程)이다.

● 메어들여 석살림...산신(産神)을 제신(諸神)이 좌정(坐定)해 있는 기본제상(基本祭床)으로 모셔들이고 즐겁게 놀리는 과정(過程)이다.

이렇게 하려 불도(佛道)맞이를 끝내고 다시 차려서 일월(日月)맞이 제상(祭床)을 차려서 일월(日月)맞이를 시작한다.

⑧ 일월맞이

일월신(日月神)을 맞아들여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소제차(小祭次)는 불도맞이에서와 같이 <초감제>와 <상단숙여 소지(燒紙)사르는> 사이에 <질치는> 연극적 행사(演劇的 行事)가 더 긴 것이다. 모든 맞이곳은 그 형식(形式)이 같다.

⑨ 초공본풀이

무조신(巫祖神) <초공>의 신화(神話)를 음송(吟誦)하고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신방(神房)은 기본제상(基本祭床) 앞에 앉아서 장고를 치며 무조신(巫祖神)의 생활사(生活史)를 노래하고 기원(祈願)하는 것이다. 모든 본풀이를 하는 방식(方式)은 같다.

⑩ 초공맞이

무조신(巫祖神)을 맞아들여 소지(燒紙) 올리는 의식(儀式)으로 그 형식(形式)이 일월

(日月)맞이와 같다.

⑪ 이공본풀이

서천(西天) 꽃밭의 주화관장신(呪花管掌神) <이공>의 신화(神話)를 음송(吟誦)하고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서천(西天) 꽃밭이란 인간생명(人間生命)의 환생(還生) 또는 멸망(滅亡)을 주는 주화(呪花)를 가꾸는 곳이다. 형식(形式)은 모든 타(他) 본풀이와 같이 무격(巫覡)이 앉아서 장고를 치며 창(唱)하는 것이다.

⑫ 이공맞이

이공(神)을 맞아들여 소지(燒紙) 올리는 의식(儀式)。

⑬ 삼공본풀이

<전상>차지신(神) <삼공>의 신화(神話)를 음송(吟誦)하고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전상>이란 평상시(平常時)와 달리 마구 술을 먹거나 망칙한 짓을 하여 가산(家産)을 탕진하게 하는 행위(行爲)나 그런 행위(行爲)를 일으키는 마음을 말한다.

⑭ 췌삼계

이 때까지도 후시(或是) 미참(未參)한 신(神)이 있을까 하여 재차(再次) 청신(請神)하는 의식(儀式)이다. 그 재차형식(祭次形式)은 <초상계>와 같다.

⑮ 십왕(十王)맞이

십왕(十王)과 차사(差使)를 맞아들여 기원(祈願)하며 사령(死靈)을 위무(慰撫)하여 저승가는 길을 치워 닦아 보내는 의식(儀式)이다. <체사본풀이> <액막이> <낙가도전침> <삼천군병질침>등 여러 가지 의식(儀式)이 끼어있어 다른 맞이곳에 비(比)하여 복잡하나 그 형식(形式)의 원리(原理)는 타(他) 맞이곳과 같다. 다만 십왕(十王)과 그 하위(下位) 직계신(直系神)들에 대(對)한 의식(儀式)이 삽입(插入)된 것뿐이다.

⑯ 세경본풀이

농축관장신(農畜管掌神) <세경>의 신화(神話)를 음송(吟誦)하고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⑰ 제오삼계

재차(再次) 미참(未參)한 신(神)이 있을까 하여 청신(請神)하는 의식(儀式)이다. 형식(形式)은 <초상계>와 같다.

⑱ 삼공맞이(전상놀이)

<전상>신(神)을 맞아들이고 그 신(神)으로 하여금 집안의 사(邪)를 쫓아내는 의식(儀式)이다. 연극적(演劇的)인 행동(行動)으로 축사(逐邪)를 한다.

⑲ 망궁숙임

제석궁(帝釋宮)과 십왕(十王) 곧, 십왕(十王) 이상(以上)의 신(神)들에게 돌아갈 체비를 하도록 하는 과정(科程)으로 몇마디의 창(唱)으로써 끝이 난다.

⑳ 세경놀이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過程)을 민요(民謠) 섞인 연극(演劇)으로 연출(演出)하여 풍농(豐農)의 풍등(豐登)을 비는 의식(儀式)이다.

㉑ 문전본풀이

문신(門神)의 신화(神話)를 음송(吟誦)하고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

㉒ 본향다리

촌락수호신(村落守護神)인 <본향>을 대접하여 보내는 의식(儀式)。

㉓ 각도비님

□신(□神) 칠성(부신(富神)) 오방토신(五方土神)등 집안의 각(各) 부문(部門)을 관장(管掌)한 신(神)에게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㉔ **염개돌려세움**

조상(祖上)의 사령(死靈)을 돌려 보내는 의식(儀式)。

㉕ **군웅만판**

씨족(氏族) 내지(乃至) 가문(家門)의 수호신(守護神)을 돌려 보내는 의식(儀式)。

㉖ **물놀이**

각신(各神)이 타고 갈 말을 몰아 들이는 의식(儀式)。

㉗ **도진**

일만팔천신(一萬八千神) 모두를 돌려 보내는 송신(送神)의 의식(儀式)。

㉘ **가수리**

하위(下位) 잡귀(雜鬼)를 대접하여 보내는 의식(儀式)。

이상(以上)의 순서(順序)로 청신(請神)에서 송신(送神)까지의 큰 굿의 실수(實修)가 끝난다. 이 외(外)에 아침에는 신(神)을 기상(起床)시켜 세수(洗水)시키는 의식(儀式)인 <관세우>가 끼며, 어부(漁夫)집이나 익사혼(溺死魂)을 위무(慰撫)코자 할 때에는 <요왕맞이>, 백정(白丁)의 집에는 <거무영청굿>, <선왕신(神)=도깨비신(神)> 범접(犯接)으로 인(因)한 환자(患者)가 있을 때는 <영감놀이> 등 굿하는 사유(事由)에 따라서 제차(祭次)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또, 굿을 끝내고 일주일(一週日)이 되면 굿할 때 미참(未參)했던 신(神)이나 아직 돌아가지 아니한 신(神)을 대접해 보내는 <뒤맞이>란 의식(儀式)이 있다. 이로써 굿은 완결(完結)되는 것이다.

나. 분류(分類)와 형식적 구성(形式的 構成)

이상(以上)에서 3, 4일이 요(要)하는 큰 굿의 제차과정(祭次過程)과 그 내용(內容)의 개략(概略)을 나열(羅列)하였다. 극히 간단한 항목(項目)만 나열(羅列)한 것이지만, 장황(張皇) 복잡(複雜)하여 일견(一見) 무질서(無秩序)한 것 같으나 자세히 관찰(觀察)하면 거기에서 질서(秩序)를 발견(發見)하게 된다.

첫째. 의례(儀禮)의 전과정(前過程)을 통(通)해 볼 때 굿의 시작인 <초감제>에서부터 <보새감상>까지는 모든 신(神)을 일제(一齊)히 청신(請神)하여 향연(饗宴)하고 기원(祈願)하는 것이며, 그 이하(以下)는 개별의례(個別儀禮)이고 송신(送神)은 굿의 종결시(終結時)에 제신(諸神)을 일제(一齊)히 한다는 것이다. 즉(卽), 종합청신의례(綜合請神義禮)→개별청신의례(個別請神儀禮)→종합송신(綜合送神)의 과정(過程)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개별의례(個別儀禮)의 순서(順序)는 <불도맞이>→<일월맞이>→<초공본풀이>…와 같이 신(神)의 계위순(階位順)으로 전도(全島)가 일정(一定)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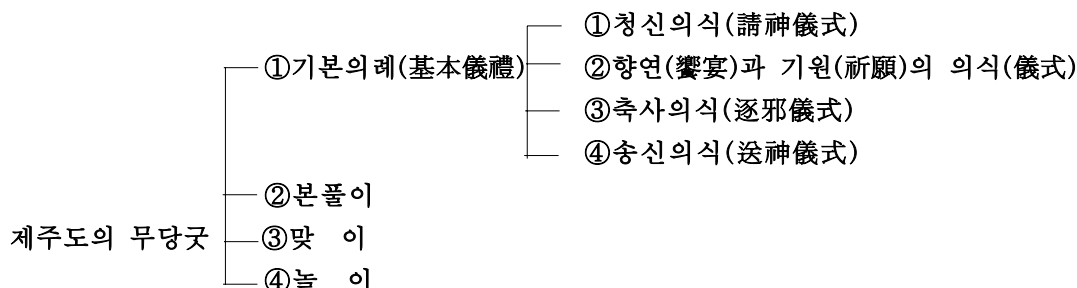
셋째. 각(各) 신(神)에 대(對)한 개별(個別) 의례(儀禮)는 <초공본풀이>와 <초공맞이> <세경본풀이>와 <세경놀이>와 같이 <본풀이+맞이> 또는, <본풀이+놀이>로 구성(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각(各) 의례(儀禮)는 모두 그 기본형식(基本形式)이 잡혀있는 점(點)이다.

이제 제주도(濟州島) 무당굿의 형식(形式)을 이해(理解)키 위하여 위의 큰 굿의 각(各) 의례(儀禮)를 그 형식(形式) 내지(乃至) 성질상(性質上)으로 분류(分類)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첫째의 기본의례(基本儀禮)는 <큰굿>의 경우나 <작은굿>의 경우나 <비념>의 경우나 그 내용(內容) 형식(形式)이 동일(同一)한 것이다.



큰 굿의 경우는

① 청신의식(請神儀式)이 초감제, 초신맞이, 초상계, 제오상계 등으로 분화(分化) 확장(擴張)되어 있어 여러 무격(巫覡)이 분담(分擔)하여 독립제차(獨立祭次)로 집행(執行)하나 작은 굿의 경우나 비념 때에는 무격(巫覡) 1인이 이를 연속적(連續的)으로 집행(執行)한다. 그 내용(內容) 형식(形式)은 어떤 굿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언제 무슨 까닭으로 누가 굿을 하여 신(神)을 청(請)하니 하강(下降)하고서> 하는 언어적(言語的) 표현(表現)이 기본(基本)이 되고 있다.

② 향연(香煙)과 기원(祈願)의 의식(儀式) <큰 굿>의 경우는 <추물공연> <석살림> <보새감상>등 제차(祭次)가 분화(分化) 독립(獨立)되어 있고, 또, 그 형식(形式)도 언어적(言語的) 표현(表現)인 무가(巫歌)의 창(唱)으로 하기도 하고 무용(舞踊)이나 연극적(演劇的) 소작(所作)으로 하기도 하나 <작은 굿>이나 <비념> 때에는 1인의 무격(巫覡)이 연속적(連續的)인 무가창(巫歌唱)으로써 한다. 이것도 역시(亦是) 언어적(言語的) 표현(表現)이 기본(基本)이라 할 것이다.

③ 축사의식(逐邪儀式)도 큰 굿의 경우는 <새다림> <액막이>등 분화되어 있지만 타(他) 의례시(儀禮時)는 무격(巫覡) 1인이 연속(連續) 집행(執行)한다.

④ 송신(送神)의 의식(儀式)도 큰 굿의 경우는 <양궁숙임> <영개들려세움> <군웅만판> <도진> 등 분화(分化) 독립(獨立)되어 있지만 타의례(他儀禮)는 하나로 축소(縮少)되어 있어 일인 1인의 무격(巫覡)이 무가창(巫歌唱)으로 끝 맺는다.

이처럼 기본의례(基本儀禮)는 <청신(請神)+향연(香宴)·기원(祈願)+축사(逐邪)+송신(送神)>의 순(順)으로 구성(構成)되어 언어적(言語的) 표현(表現)인 무가창(巫歌唱)을 주(主)로하여 하는 것인데, 이를 1인의 무격(巫覡)이 연속집행(連續執行)하면 <작은 굿>이나 <비념>의 경우요, 분화(分化) 독립(獨立)시켜 독립제차(獨立祭次)로 행(行)하면 큰 굿의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기본의례(基本儀禮)라 부른 것이며, 이 의례(儀禮)의 구성형식(構成形式)인 <청신(請神)+향연(饗宴)·기원(祈願)+축사(逐邪)+송신(送神)>을 제주도(濟州島)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기본형식(基本形式)이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의 본풀이란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등으로서 신(神)의 내력담(來歷譚) 곧, 신화(神話)를 창(唱)하는 것이다. 이것도 먼저 굿하는 사유(事由)를 노래하고 이어서 신화(神話)를 창(唱)한 후

(後) 기원(祈願)하는 형식(形式)을 무격(巫覡)은 시종(始終) 앉아서 장고를 치며 창(唱)으로 한다. 의례(儀禮)의 기원(祈願)에 신화(神話)를 창(唱)하는 것은 신(神)의 직능(職能)과 재차(祭次)의 정당성(正當性)을 명확(明確)히 근거(根據)함으로써 신(神)으로 하여금 기구사항(祈求事項)을 아니들어 줄 수 없게 하는 방법(方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풀이>는 기원형식(祈願形式)의 발달(發達)된 형태(形態)로서 순수(純粹) 언어적(言語的) 요소(要素)로 되어 있는 의식(儀式)이다.

세째 <맞이>란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시왕맞이> 등이다. 이 <맞이굿>들은 기본의례형식(基本儀禮形式)에 <질침>이라는 <소로작업(掃路作業)>을 상징하는 의식(儀式)이 더 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맞이굿>은 청신(請神)의 의식(儀式)인 <초감제>와 향연(饗宴)·기원(祈願)의 의식(儀式)인 <추물공연>을 한 후(後) 해신(該神)의 하강로(下降路)인 <질(로(路))>을 치워(소(掃)) 영신(迎神)하고 소지(燒紙)를 사르는> 과정(過程)으로 진행(進行)되는 것이다. 길을 치우는 방식(方式)은 해신(該神)의 신화(神話)에 근거(根據)삼아 신(神)의 하강로(下降路)의 잡초목(雜草木)을 베어 넘기고 흙을 고르고 각종(各種) 다리를 놓고 하는 과정(過程)을 무용위주(舞踊爲主)로 하여 신(神)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맞이굿은 의례(儀禮)의 기본형식(基本形式)에 의(依)하여 청신(請神)·향연(饗宴)·기원(祈願)한 후(後) 다시 하강로(下降路)를 닦아 청신(請神)하고 향연(饗宴)·기원(祈願)하고 송신(送神)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의 의례(儀禮)인 것이다. 의례(儀禮)의 기본형식(基本形式)은 언어위주(言語爲主)의 것이요, <질침>은 무용위주(舞踊爲主)의 의례(儀禮)라 할 수 있으니, 이 맞이굿들은 언어위주(言語爲主)의 의례(儀禮)와 무용위주(舞踊爲主)의 의례(儀禮)의 이중구조(二重構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의 <놀이>는 <세경놀이> <말놀이> <전상놀이> <영감놀이> 등으로서 그 형식(形式)은 기본의례형식(基本儀禮形式)에다 해신(該神)의 신화(神話) 내용(內容)을 행동(行動)으로 연출(演出)하는 일종(一種)의 성극적(聖劇的) 의례식(儀禮式)이 삽입(插入)된 것이다. 위에서 본 <맞이굿>은 언어위주(言語爲主)의 기본의례(基本儀禮)와 무용위주(舞踊爲主)의 의례(儀禮)가 이중구조(二重構造)된 것인데 비(比)해, 이것은 언어위주(言語爲主)의 기본의례(基本儀禮)에다 극적(劇的) 의례(儀禮)가 이중(二重)으로 구성(構成)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놀이굿>에도 그 발달(發達)의 정도(程度)에 따라 <세경놀이>와 같이 기본의례요소(基本儀禮要素)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도 있다.

이상(以上) 의례(儀禮)의 형식(形式)을 분류(分類)하여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제주도(濟州島)의 무당굿은 <청신(請神)+향연(饗宴)·기원(祈願)+송신(送神)>의 언어적(言語的) 표현(表現)이 기본형식(基本形式)으로 되어있으며, 의례(儀禮)의 규모(規模), 신(神)의 성격(性格), 의례(儀禮)의 목적(目的)에 따라 언어위주(言語爲主)의 신화(神話) <본풀이>, 무용위주(舞踊爲主)의 <맞이>, 극적(劇的) 연출(演出)의 <놀이> 등이 기본형식(基本形式) 속에 삽입(插入)되어 이중구조형식(二重構造形式)의 의례(儀禮)가 형성(形成)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념>이나 <작은굿>등 소규모(小規模)의 의례(儀禮)는 기본형식(基本形式)만으로 된 것이요, 큰 굿의 종합제(綜合祭)는 이 기본의례형식(基本儀禮形式)이 분화확대(分化擴大)됨과 동시(同時)에 거기에다 <본풀이> <맞이> <놀이>등 언어(言語) 무용극위주(舞踊劇爲主)의 개별의례(個別儀禮)가 복합(複合)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들판에 다니다 임신(妊娠)한 여인(女人)이 달이 차서 해산(解産)하는 모습의 장면(場面)

五, 굿놀이의 요소(要素)

제주도(濟州島)의 굿놀이는 어떤 형식(形式)의 것이든 무격(巫覡)의 언어적(言語的) 표출(表出)과 행동적(行動的) 표출(表出)로 집행(執行)된다. 이제 이 양요소(兩要素)를 분석(分析)하여 간단히 살펴 나가기로 한다.

가. 언어적(言語的) 요소(가악(歌樂))

무격(巫覡)의 언어적(言語的) 표출(表出)은 대부분(大部分) 음악(音樂)이 따르거나 음(音)의 고저(高低) 강약(強弱) 장단(長短)을 섞어 불리워진다. 이 점(點)에서 가요(歌謠)(무가(巫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창(歌唱)의 형식(形式)도 순수(純粹) 대화조(對話調)에서부터 악무(樂舞)가 따르는 순수(純粹) 가요(歌謠)에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률적(一律的)으로 가요(歌謠)라 하기엔 좀 부적(不適)한 감(感)이 없지 않다.

이 의례(儀禮)의 언어적(言語的) 요소(要素)는 그 형식면(形式面)에서 보아 대충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說明)될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는 초감제시(時)의 <배포도엮치고> <날과국 섬기고> <집안 연유 닦고> <군문 열리는> 대목이나 일반적(一般的)인 <비념> 또는 신의(神意)를 점(占)쳐 전달(傳達)하는 <산받아 분부사됨> 등 의례(儀禮)의 대부분(大部分)의 경우(境遇)다. 이 경우는 무격(巫覡)은 입창(立唱)함이 주(主)이나 악기(樂器)의 반주(伴奏)가 따르지 않으며 무(舞)도 수반(隨伴)하지 않는다. 또한 가요(歌謠)의 음절(音節)이나 울조(律調)가 일정(一定)치 않고 그 때 그 때 사설(辭說)의 내용(內容)과 음절수(音節數)의 구조(構造)에 따라 그 가락을 맞추어 간다. 이 때의 무(舞)는 창가(唱歌)의 단락(段落)과 단락(段落) 사이에 전악기(全樂器)가 울리고, 가창(歌唱)과는 별도(別途)의 춤이 추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歌)>라 하기보다는 <음율적(音律的) 사설(辭說)>이라 할만한 형식(形式)의 가요(歌謠)다.

둘째는 가(歌)와 음율적(音律的) 사설(辭說)과의 중간적(中間的) 존재(存在)라 할만한

것이다. <오리정> <상계> <도진> 등 주(主)로 청송신(淸送神)의 사설(辭說)이나 <본풀이> <추물공연> <새다림> 등이 이 형식(形式)에 든다. 이것들은 모두 장고나 북의 반주(伴奏)가 따르며 대부분(大部分) 악무(樂舞)의 복창(復唱)이 뒤따른다. 무(舞)는 수반(隨伴)되지 않으나 가사(歌詞)의 음률(音律)이 어느 정도 정돈(整頓)되어 있어 <반가요(半歌謠)>라 부를만한 형식(形式)이다.

셋째는 <석살림>때의 <덕담> <담불> <서우젓소리> 등 <순수가요(純粹歌謠)>라 할 수 있는 형식(形式)의 것이다. 이것들은 무격(巫覡)이 입창(立唱)하며 장고나 북의 반주(伴奏)와 무(舞)가 수반(隨伴)된다. 또한 악무(樂舞)들의 복창(復唱)이 따르고 가사(歌詞)의 음률(音律)이 정연(整然)하다.

네째는 각종(各種) <맞이굿>이나 <놀이> <성주풀이>등 주(主)로 극적연출의식(劇的演出義式) 때에 무격(巫覡)들 사이나 무격(巫覡)과 고객(顧客)들 간(間)에 교환(交換)되는 <순수대화(純粹對話)>다. 이 때에는 악기(樂器)의 반주(伴奏)나 무용(舞踊)이 없는 반면(反面) 비율동적(非律動的)인 극적(劇的) 동작(動作)이 행(行)해 진다.

이상(以上)을 요약(要約)하면 제주도(濟州島)의 무가(巫歌)들은 형식면(形式面)에서 보아 ① 악무(樂舞)가 수반(隨伴)하고 음률(音律)이 정연(整然)한 순수가요(純粹歌謠) ② 악기반주(樂器伴奏)는 있으나 무(舞)가 따르지 않고, 음률(音律)이 반정연(反整然)한 순수가요(純粹歌謠)와 음율적(音律的) 사설(辭說)의 중간적(中間的) 형식(形式)(이를 반가요(反歌謠)라 불러두자) ③ 악무(樂舞) 모두 없고 음율(音律)이 부정(不整)한 음율적(音律的) 사설(辭說) ④ 극적(劇的) 행동(行動)만이 반행(伴行)되는 순수대화(純粹對話), 이 4개(個) 형식(形式)이 혼합(混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무가(巫歌)를 그 내용(內容)으로 보면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청신사(淸神詞) ● 향연(饗宴) 및 기원사(祈願詞) ● 신화(神話) ● 신의문의(神意問議)와 전달사설(傳達辭說) ● 축사(逐邪)의 주사(呪詞) ● 송신사(送神詞) ● 기타(其他) 사실담(事實譚) 속담(俗談) 민요(民謠) 등이 그것이다.

● 청신사(淸神詞)는 초감제의 전체(全體)가 주(主)된 것으로 인간(人間)이 신(神)을 향(向)해 하는 사설(辭說)이다. 그 형식(形式)은 음율적(音律的) 사설(辭說) 내지(乃至) 반가요(反歌謠)의 형식(形式)을 취(取)하나, <전상놀이기>나 <영감놀이>등과 같이 신(神)이 직접(直接) 내방(來訪)함을 맞아들이는 극적(劇的) 방법(方法)에는 순수(純粹) 대화조(對話調)로 진행(進行)된다.

● 향연(饗宴) 및 기원사(祈願詞)는 신(神)을 향(向)한 간곡(懇曲)하고 우미(優美)한 표현(表現)으로 속담(俗談)이 많이 끼며 반가요(反歌謠) 내지(乃至) 순수가요(純粹歌謠)의 형식(形式)을 취(取)한다.

● 신화(神話)(본풀이)는 신(神)의 기능(機能)과 제의(祭儀)의 정당성(正當性)을 입증(立證)하기 위한 신(神)의 내력담(來歷譚)인데 <반가요(反歌謠)>의 형식(形式)으로 좌창(坐唱)된다.

● 신의문의(神意問議)와 전달사설(傳達辭說)은 무점시(巫占時)의 사설(辭說)로서 인간(人間)이 신(神)에게, 신(神)이 인간(人間)에게 각각(各各) 하는 말이다. 형식(形式)은 음율적(音律的) 사설(辭說)이다.

● 축사(逐邪)의 주사(呪詞)는 무격(巫覡)이 직접(直接) 사(邪)를 구축(驅逐)하는 것과 내방(來訪)한 신격(神格)이 구축(驅逐)하여 주는 형식(形式)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반가요적(反歌謠的) 가창(歌唱)과 그에 따른 행동(行動)이 수반(隨伴)된다.

● 송신가(送神歌)는 무격(巫覡)이 신(神)을 향(向)해 돌아가십사고 하는 방식(方式)과 신격 자신(神格 自身)이 그만 가겠다고 노래하는 방식(方式)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반가요(半歌謠)>의 형식(形式)으로 창(唱)된다.

이상(以上) 무격(巫覡)의 내용(內容)을 그 형식(形式)과 대비(對比)하여 보았거니와 이들 가요(歌謠)를 다시 인칭별(人稱別)로 보면

- 인간(人間)이 신(神)을 향(向)한 사설(辭說)
- 신(神)이 인간(人間)에게 하는 사설(辭說)
- 신(神)이 하위신(下位神)에게 하는 사설(辭說)
- 인간(人間)이 인간(人間)에게 하는 사설(辭說)

로 나눌 수 있다. 이 인칭별(人稱別) 사설(辭說)과 그 형식(形式)을 보면 다소(多少)의 예외(例外)는 있어도 인간(人間)이 신(神)을 향(向)한 사설(辭說)은 <순수가요(純粹歌謠)> 내지(乃至) <반가요(反歌謠)>의 형식(形式)을 취(取)했고, 신(神)이 인간(人間)을 향(向)한 사설(辭說)은 <반가요(反歌謠)> 내지(乃至) <음율적(音律的) 사설(辭說)>의 형식(形式)을 취(取)했는데 인간(人間)이 인간(人間)에게 하는 사설(辭說)은 순수(純粹) 대화조(對話調)의 형식(形式)을 취(取)하고 있는 것이다.

나. 행동적(行動的) 요소(要素)(무용(舞踊)·연극(演劇))

가요(歌謠)와 더불어 의례(儀禮)를 구성(構成)하는 무격(巫覡)의 행동적(行動的) 표출(表出)은 크게 율동적(律動的) 행동(行動)과 비율동적(非律動的) 행동(行動)으로 나눌 수 있다. 율동적(律動的) 행동(行動)이란 이른바 무용(舞踊)이요, 비율동적(非律動的) 행동(行動)이란 해신(該神)의 신화내용(神話內容)을 행동(行動)으로 표출(表出)하는 극적(劇的) 행위(行爲)와 그외(其外)의 의례집행(儀禮執行) 동작(動作)들이다.

무용(舞踊)은 우선(于先) 가요(歌謠)와의 관계(關係)에서 보아 가창(歌唱)과 더불어 병무(併舞)되는 것과 가창(歌唱)의 단락(段落)과 단락(段落) 사이에 별도(別途)로 악기(樂器)의 박자(拍子)에 맞추어 가창(歌唱)없이 추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창(歌唱)과 더불어 추는 춤은 신(神)을 즐겁게 놀리는 의식(儀式)인 <석살림>때의 <덕감, 담불, 서우젯소리> 등의 가창(歌唱)에 맞추어 추는 것이다. 이 때는 악무(樂巫)가 북과 장고를 치고, 입무(立巫)는 가창(歌唱)을 하고 남은 무격(巫覡)이 나와 춤을 춘다. 또, 제주(祭主)나 큰가족(家族) 또는 구경꾼들도 나와서 춤을 춘다. 모두들 나와 춤을 추어야 좋다는 관념(觀念)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 노래는 위에서 <순수가요(純粹歌謠)>라 한 음률(音律)이 정연(整然)한 노래다. 그러므로 이 무(舞)는 가창(歌唱)의 음률(音律)에 자연적(自然的)으로 올라나는 육체적(肉體的) 율동(律動)이라 할 만한 것이다. 고(故)로 이 무(舞)를 <순수무(純粹舞)>하고 불러두고자 하거니와 이것은 인간(人間) 자신(自身)의 즐거움의 표현(表現)임과 동시(同時)에 신격(神格)에게 그 즐거움을 보여서 신의(神意)를 화열(和悅)케 하려는 저의(底意)가 있는 춤이라 하겠다. 이 춤은 여러 사람이 나서서 추긴 하나 군중(群衆)이 윤무(輪舞)를 하거나 행렬(行列)을 짓거나 하는 질서(秩序)가 없이 각자(各者) 난무(亂舞)를 하고 또 그 인원수(人員數)의 규정(規定)도 없는 것으로 보아 어디까지나 1인무(舞)라 할 것이다.

이<석살림>때 이외(以外)는 모든 무용(舞踊)이 다 가창(歌唱)없이 악기(樂器)의 박자(拍子)에만 맞추어 추어진다. 즉(卽), 악기(樂器)의 반주(伴奏)없이 <음률적(音律的) 사

설(辭說)을 가창(歌唱)하고 그 일단락(一段落)의 가창(歌唱)이 끝나면 전악기(全樂器)가 요란스럽게 울리는데 그 박자(拍子)에 맞추어 가창(歌唱)하던 입무(立巫)가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시 반주(伴奏) 없는 입무(立巫)의 가창(歌唱)이 시작되곤 한다. 이것의 반복(反復)이 의례(儀禮)의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한다.

이 가창(歌唱) 없는 무용(舞踊)이라는 점(點)이나 그 악기(樂器)가 북 징 팽가리로 순박자(拍子)만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이 무용(舞踊)의 동기(動機)가 순수(純粹) 예술적(藝術的)인 감동(感動)에서 저절로 울어난 것이 아니요, 그 목적(目的)이 어떤 공리적(公理的)인데 있음을 우선(于先) 짐작하게 한다.

한편, 이들 무용(舞踊)은 세밀(細密)히 관찰(觀察)하면 여러 가지 형식(形式)이 있으나 대부분(大部分)이 어떤 행동(行動)을 모방(模倣) 상징(象徵)한 육체적(肉體的) 울동(律動)임을 곧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 무용(舞踊)을 <행동무(行動舞)>라고 우선(于先) 불러두기로 하고 이제 그 중요(重要)한 것들을 필자(筆者)대로의 이름으로 열거(列舉)하여 그 춤들의 모습을 보이기로 한다.

① 배포춤(배포무(排布舞))

초감제 때 천지개벽(天地開闢)에서부터 제청설비지역(祭廳設備地域)까지의 지리(地理)역사(歷史)의 발생(發生) 배치(配置)를 해설(解說)하는 <배포도업침>에서 추는 춤이다.

입무(立巫)는 천지개벽(天地開闢) 성신배포(星辰排布) 일월광배포(日月光排布) 산수배포(山水排布) 천지인황도읍(天地人皇都邑) 고구려도읍(高句麗都邑) 등 하나 하나 가창(歌唱)하고 그사이 사이에 춤을 춘다. 이 춤은 어떤 행동(行動)을 상징(象徵)한 것이라고 얼른 직감(直感)할 수는 없으나 생각컨대 모든 자연(自然) 인문사상(人文事象)의 발생배치(發生配置)를 상징(象徵)한 춤 같다.

② 도랑춤(회무(回舞))

이 춤은 초감제 때 신(神)을 청하려고 신궁문(神宮門)을 여는 <군문열림>때 추는 춤이다.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程度)로 정신(精神)없이 좌우(左右)로 팽팽 돌다가 엎디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난무(亂舞)다. 신방(神房)들은 이를 <도랑춤>이라 부르며, 앞의 <배포춤>은 양반(兩班)의 행세(行勢)인데 이 <도랑춤>은 궁문(신궁문(神宮門))을 지키는 사령(使令)의 행세(行勢)라고 설명(說明)한다. 이 설명(說明)과 같이 이 춤은 신궁문(神宮門)을 여는 수문장(守門將)의 행동(行動)을 상징(象徵)하는 춤이라 할 것이다.

③ 신천귀춤(청신무(淸神舞))

한참동안의 도랑춤이 끝나면 신방(神房)은 신(神)을 제상(祭床)까지 모셔들이는 사설(辭說)을 노래한 후(後), 왼쪽 손에 쌀보시기를 들고 오른 손에 신칼(신도(神刀))을 들고 허리를 약간 굽혀 사뿐사뿐 문간쪽으로 춤추어 간다. 거기서 신칼 끝으로 쌀을 몇 번 떠던지고는 다시 허리를 굽어 춤추어 되돌아와서 제상(祭床)에 쌀을 던지곤 한다. 이것은 바깥에 온 신(神)을 제상(祭床)까지 청(淸)하여 엮어들이는 행동(行動)을 울동화(律動化)한 것임이 분명(分明)하다.

④ 향로(香爐)춤

이것은 석살림 때에 『상촉권상(향촉권상(香燭勸上))하자』는 사설(辭說)에 이어서 향(香)불 피운 향로(香爐)를 들고 추는 춤이다. 향(香)불로 부정(不淨)을 씻는 행동(行動)의 울동화(律動化)하 볼 것이다.

⑤ 주잔(酒盞)춤

<향로권상(香爐勸上)>한 후(後) 『삼주잔(三酒盞) 권잔(勸盞)하자』는 사설(辭說)의 노래에 이어 술잔 셋이 놓인 잔대(盞臺)를 들고 추는 춤이다. 이는 권배(勸杯) 곧, 향연(饗宴)의 율동적(律動的) 소작(所作)임을 곧 느끼게 한다.

⑥ 떡춤(병무(餅舞))

떡을 들고 추는 춤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십왕(十王)맞이> 때의 <나까시리 놀림>제차(祭次)때에 신방(神房)이 커다란 시루떡을 들어 춤추다가 위로 던져 올렸다 다시 잡아 춤추고 하는 것인데, 이를 <나까시리놀림(시루떡 놀림)>이라 하고, 타(他)는 <도래들러뎌>이라 하여 도래떡 채롱을 들고 추는 춤이다. 어느 것이나 향연(饗宴)의 율동적(律動的) 표현(表現)이라 할 것이다.

⑦ 할망춤(老婆舞)

이 춤은 산신(産神)에 대한 의례(儀禮)인 <불도맞이>를 다 끝내고 산신(産神)을 기본상(基本床)까지 모셔들이는 과정(過程)(이를 메어든다고 함)에 추는 춤이다. 신방(神房)은 <철죽대>라는 막대기를 짚고 허리를 굽혀 노파(老婆)의 걸어가는 모습의 춤을 추는 것이다. 제주(濟州)의 산신(産神)은 여신(女神)이니 이 춤은 산신(産神)이 제의(祭儀)를 다 받고 기본상(基本床)으로 돌아가는 모습의 율동적(律動的) 표현(表現)인 것이다.

⑧ 칼춤

제주도(濟州島)의 무격(巫覡)은 대부분(大部分)의 춤을 그들의 기본무구(基本巫具)인 신(神)칼을 들고 추므로 거의 칼춤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 말하려는 것은 수렵인(狩獵人)이나 백정(白丁)의 집안에서 하는 <산신제> <거무영청굿>등 의례(儀禮)에서 추는 칼춤이다. 이 춤은 무격(巫覡) 1人 또는, 2人 칼 끝에 고기를 꿰어 들고 춤을 춘다. 이것은 고기를 먹던 그들의 조령(祖靈)에게의 향연(饗宴) 또는, 그들의 생활(生活)을 모방(模倣) 재현(再現)한 무용(舞踊)이라 할 것이다.

⑨ 질치기춤(소로무(掃路舞))

모든 <맞이굿> 때에 신격(神格)의 하강로(下降路)를 치워 닦는 의식(儀式)이나 사령(死靈)을 저승에 보내는 길을 치워 닦는 의식(儀式) 때에 그 소로과정(掃路過程)을 율동적(律動的)으로 표현(表現)하는 춤이다. 그 과정(過程)은 22과정(過程)인데 다음과 같다.

- 신(神)의 하강(下降)하는 좌우도(左右道)를 돌아 보고,
- 탕천(撐天)한 잡초목(雜草木)을 은월도(銀鉞刀)로 베고,
- 이를 막대로 치우고,
- 그 그루터기를 은월도(銀鉞刀)로 끊고,
- 그 그루터기를 은따비로 파고,
- 그 흙을 발로 밟아 고르고,
- 나딩구는 돌맹이를 삼태기로 치우고,
- 땅의 요철(凹凸)을 밀대로 고르고,
- 일어나는 먼지를 비로 쓸고,
- 이슬다리 놓고(물을 뿌림을 뜻함),
- 물을 너무 뿌려 젖은 땅에 마른 다리(건교(乾橋)) 놓고 (띠를 갈아 놓음),
- 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나비다리(접교(蝶橋))놓고(종이조각을 뿌림),
- 그 위에 해신(該神)의 다리를 놓고(긴 무명을 갈아 놓음),
- 그 무명 길이 바르지 못한 곳을 가위로 끊고,
- 그 무명의 울구멍을 메우고(쌀을 뿌림),
- 시루떡다리 놓고(떡가루를 뿌림),
- 흥마음다리 놓고(신(神)의 하강(下降)상징(象徵)으로 말방울 대신 요령(搖鈴) 소리를 울림),
- 청너울다리 놓고,
- 공작깃다리 놓고,
- 등진다리,
- 애산다리,
- 자부연다리 놓음.

이상(以上)의 과정(過程)으로 길을 닦은 후 신(神)을 맞아들이는데 위의 ● 울구멍 메

우기까지는 소로과정(掃路過程)의 율동적(律動的) 표현(表現)이고, 그 이하(以下)는 신(神)의 하강(下降)하는 모습의 율동적(律動的) 표현(表現)이라 할 수 있다. 그 춤의 모습은 ●은 대가지로 꽃아 만든 열 개의 문(門) 사이를 춤추며 도는 것이며, ●●●는 신도(神刀)로 그 시늉을하는 춤이며, ●은 막대기에 도래떡을 꿰어 만든 가(假)따비로 파는 시늉을 하는 춤이며, ●은 도약(挑躍), ●은 실제(實際) 들맹이를 굴리고……이와 같이 그 내용(內容)이 춤의 외관(外觀)에 들어 난다.

이상(以上) 예시(例示)한 제무용(諸舞踊)들의 내용을 보면 ●무격(巫覡)이 신(神)을 향(向)한 동작(動作) 곧, 의례행집동작(儀禮執行動作)을 율동화(律動化)한 무(舞)(청신(請神) 향연(饗宴) 등) ●신(神)의 현시(現時) 행동(行動)을 표현(表現)한 무(舞)(내왕(來往)의 모습 등) ●신(神)의 과거생활(過去生活)을 현재(現在) 재현(再現)하는 무(舞)(칼춤 등) 등인 것이다.



영감이 춤추며 놀 때에는 소무(小巫)나 구경꾼까지 나와 춤추며 즐긴다.

이와 같이 제주도(濟州島)의 무무(巫舞)는 <순수무(純粹舞)>나 <행동무(行動舞)>나 모두 순수(純粹) 예술적(藝術的)인 감흥(感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의(神意)를 움직이고 신격(神格)의 과거(過去)의 능력(能力)을 현재(現在) 재현(再現)케 하는 능력(能力)이 있는 공리적(功利的)인 것이다.

다음은 비율동적(非律動的) 행동(行動)인 극적(劇的) 요소(要素)를 보기로 한다.

① 도지마을굿

폐백(幣帛) 증물(贈物)을 바쳐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인 <보새감상> 때 신격(神格)에게 사죄(謝罪) 기원(祈願)하는 죄(罪)를 푸는 대목을 극적(劇的) 행위(行爲)로 하는 것이다. 무격(巫覡)은 증물(贈物)인 무명을 두 팔로 재어 제상(祭床)에 올리려다가 스스로 두 팔목을 푹푹 묶어지게 해 놓는다. 그래서 소무(小巫) 구경꾼 제주(祭主)에게 각각(各各) 돌아가며 이게 누구의 죄(罪) 때문인가를 문답(問答)하고 결국(結局) 제주(祭主)의 죄(罪)임을 규명(糾明)하여 그 죄(罪)를 풀어내는 것이다. 해죄(解罪)를 안전(眼前)에 현현(顯現)시켜 실제(實際)의 그것을 기도(企圖)하는 주적(呪的) 수단(手段)이라 하겠다.

② 꽃놀이

기자의례(祈子儀禮)인 <불도맞이>의 꽃을 따다가 제주(祭主)에게 팔아 생명(生命)의 씨를 잉태(孕胎)케 하는 극적(劇的) 장면(場面)이다. 신방(神房)은 미리 제상(祭床) 위에 올려 있는 동백꽃을 도둑질해다가 제주(祭主)의 집을 찾아 꽃을 파는 동작(動作)을 극적(劇的)으로 연출(演出)한다.

③ 악심꽃뛰음

불도맞이의 일장면(一場面)으로 어린 아기를 잡아가는 악신(惡神) <구삼싱할망>의 관장주화(管掌呪化)를 모조리 꺾어 없애서 아기들을 잘 성육(成育)케 하는 극의식(劇儀式)이다. 이것은 <이공본풀이> 신화내용(神話內容)에 근거(根據)한 것으로 신방(神房)은 띠를 한줌 묶어서 만든 가화(假花)를 힘을 들여가며 꺾어 내는 시늉을 한다.

④ 수록침

<불도맞이>의 일부(一部)로 <동개남은증절>의 증(實)은 승복(僧服)차림의 신방(神房)이 내려와 제주(祭主)에게 제미(齊米)를 받고 불공(佛供)을 드려주어 잉태(孕胎)를 얻게 하는 의식(儀式)이다. 이것은 대부분(大部分)의 제주도(濟州島) 무속신화(巫俗神話)의 주인공(主人公)인 신(神)이 이 절간에 기자(祈子)하여 태어났다고 되어있는데 이 <수록침>은 이를 재현(再現)시키는 극행위(劇行爲)인 것이다.

⑤ 전삼놀이(또는 삼공맞이)

제주도(濟州島) 무당굿놀이 보고서(報告書)에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삼공본풀이 신화(神話)의 내용(內容)을 극적(劇的)으로 재현(再現)하여 사(邪)를 쫓아내는 것이다.

⑥ 세경놀이

이미 제주도(濟州島) 무당굿놀이 보고서(報告書)에 설명(說明)된 바와 같이 농사(農事)짓는 과정(過程)을 극적(劇的)으로 연출(演出)하여 풍농(豐農)을 기도(企圖)하는 의례(儀禮)인 것이다.

⑦ 감태공서목시(美太公首木手)

가옥신축후(家屋新築後) <성주풀이>를 할 때 그 일부의식(一部儀式)으로 미태공수목수(美太公首木手)를 불러 집을 짓는 극의례(劇儀式)를 한다. 집안의 제청(祭廳)에서 굿을 하는 입무(立巫)나 향(香)불을 피워 들고 <감태공서목시>를 세 번 부르면 이미 도끼를 메고 목수(木手)차림을 하여 나가 있던 신방(神房)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목수(木手)는 <영든산>의 <덕(德)든 나무>를 베어다 집을 짓는다. 주춧돌(실(實)은 시루떡)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걸고 (모두 대가지로 지음) 백(白)기와(실(實)은 백지(白紙)장)를 덮고 하여 자그마한 모형(模型)집을 짓는 것이다. 이 집은 지금 성주풀이를 하는 제주(祭主)의 집을 상징(象徵)한 것으로 역시(亦是) 주술적(呪術的) 극의례(劇儀式)인 것이다.

⑧ 명감놀이

이미 제주도(濟州島) 무당굿놀이 보고서(報告書)에 해설(解說)한 바 같이 영감참봉(도깨비 신(神))의 범접(犯接)호 이환(罹患)한 병(病)을 치료(治療)하는 의례(儀禮)다.

⑨ 칠성세남

사신(蛇神)인 <칠성>에게 걸린 병(病)을 치료(治療)하는 의식(儀式)이다. 이 병은 누가 뱀을 죽여버린 것을 처음 보고 그 죄(罪)를 뒤집어 써서 걸린 것인데 이 병(病)을 치료하는 데는 그 죽인 자(者)를 찾아 처형(處刑)하여 환자(患者)가 무죄(無罪)임을 밝히는 동시(同時)에 죽은 뱀을 살려 놓아야 한다. 이 의례(儀禮)는 뱀을 죽인 자(者)를 악신(惡神) <허멍이>라 단정(斷定)하고 허멍이(꼬리로 만든 허수아비)를 호출(呼出)해

다가 그 뱀을 죽였다는 자백(自白)을 받는다. 그래서 <허맹이>를 <가다귀섬>으로 귀양보내고 죽은 뱀을 환생(還生)시켜내는 극행위(劇行爲)를 한다. 이때 <허맹이>의 대사(臺詞)는 물론(勿論) 소무(小巫)가 대리(代理)한다.

⑩ 불찍맞음

화재(火災) 후(後)에 하는 <불찍굿>에서 소화행위(消火行爲)를 재현(再現)하는 극의례(劇儀禮)다. 의례(儀禮)의 마지막에 신방(神房)이 발화(發火)한 장소(場所)에 햇불을 붙여 던지면 모여있던 군중(群衆)이 모두 「불이여! 불이여!」 외치며 물을 끼얹어 불을 끈다. 그러면 입무(立巫)는 「xx네 집에 붙잡았다」고 외치고 콩을 뿌려 사(邪)를 쫓은 후(後) 소화시(消火時) 사용(使用)했던 기구(器具)를 정리(整理)한다.

⑪ 구삼심념

산신(産神)의 적대(敵對)인 <구삼심할망>의 범접(犯接)으로 앓은 아이의 병(病)을 치료하는 의례(儀禮)다.

신방(神房)은 산신(産神)께 기원(祈願)하고 <구삼심>에게 고이 돌아가라고 주문(呪言)을 한 후(後) 인형(인형(人形)) 아기를 낳힌 채롱을 들고 부엌의 <조왕>으로 광의 <안칠성>으로 문전신(門前神)에게로 각각(各各) 돌아가며 숨겨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각(各) 신(神)이 모두 욕을 하며 썩 나가라고 하므로 할 수 없이 아기를 놓고 나가는 모습을 극적(劇的)으로 실연(實演)하는 것이다. 이 때의 대사(臺詞)는 1인의 무격(巫覡)이 음성(音聲)을 바꾸어 가며 <구삼심> <조왕> <문전> <안칠성> <성주> 신(神)등 1인 5역(一人 五役)을 한다.

이상(以上) 중요(重要)한 극적(劇的) 의례(儀禮)를 보아왔는 바 이것들은 대충 ① 인간(人間)이 신(神)을 향(向)한 행동(行動), ② 신(神)이 인간(人間)에게 베풀어 주는 행위(行爲), ③ 신(神)의 과거생활(過去生活)을 현실(現實)에 재현(再現)시키는 행위(行爲), ④ 신자신(神自身)의 현시행위(現時行爲) 등으로 개괄(概括)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효과(效果)를 노리는 공리적(功利的) 의례행위(儀禮行爲)다.

六, 무 격(巫 覡)

무격(巫覡)을 제주도(濟州島)에선 <심방>이라 통칭(通稱)하다. <심방>이란 말을 무가(巫歌)에선 <신의 성방(神의 형방(刑房))>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神房=신방>의 자음동화(子音同化)인 듯하다.

<심방>이라 통칭(通稱)되는 무격(巫覡)은 그 직능(職能)으로 보아 <심방>과 <삼승할망>으로 구분(區分)된다. <심방>이란 무속의례행사(巫俗儀禮行事)인 모든 곳을 행(行)하는 무격(巫覡) 통칭(通稱)이요, <삼승할망>이란 해산시(解産時) 산파역(産婆役)을 함과 동시(同時)에 어린 아기의 무병생육(無病生育)을 기원(祈願)하는 소규모(小規模)의 의례(儀禮)(비념)만을 집행(執行)하는 여무(女巫)를 말한다.

도내(島內)의 무격수(巫覡數)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查)하기는 힘드나 1959년도(年度)의 무격단체(巫覡團體)인 <경신회(敬信會)>의 명부(名簿)에 의(依)하면 당시(當時) 회원수(會員數)가 226명(名)이다. 이 회원수(會員數)가 당시(當時)의 도내(島內) 무격(巫覡) 전부(全部)의 수(數)라 할 수는 없으나 미가입자(未加入者)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거의 실수(實數)에 가까우리라 생각된다. 이 226명(名)을 당시(當時) 제주도(濟州島) 인구 268,740人에 나누면 105人에 무격(巫覡) 1人 꼴이며, 현행(現行) 행정구역(行

政區域) 215개(個) 리(里)에 나누면 1개(個) 리당(里當) 1.2인이 주거(住居)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들 226명중(名中) 필자(筆者)가 상세(詳細)한 명단(名單)을 입수(入手)한 것은 중문면(中文面), 안덕면(安德面), 추자면(楸子面)을 제외(際外)한 12개(個) 읍면(邑面)의 것으로 무격수(巫覡數) 194人분이다. 이 194人的 면별(面別) 분포(分布)를 보면

제주시(濟州市)	33	서귀읍(西歸邑)	33
표선면(表善面)	26	성산면(城山面)	19
조천면(朝天面)	16	구좌면(舊左面)	16
남원면(南元面)	15	대정읍(大靜邑)	14
한림한경면(翰林翰京面)	12	애월면(涯月面)	10

이와 같이 도(島)를 동서(東西)로 나누면 동반부(東伴部)가 훨씬 많은 수(數)를 보이고 있어 무속(巫俗)이 성행(盛行)함을 말해 준다.

한편, 이들을 남녀별(男女別)로 보면 남자(男子)가 79명(名) 여자(女子)가 115명(名)으로 여무(女巫)가 많으며, 평균연령(平均年令)은 51세(歲)였다. 그리고 이들 무격(巫覡)을 성씨별(姓氏別)로 보면 김씨(金氏)가 46, 이씨(李氏)가 35, 고씨(高氏)가 20, 강씨(姜氏)가 11, 강씨(康氏)가 9, 한씨(韓氏)가 9, 박씨(朴氏), 신씨(申氏), 문씨(文氏)가 각(各) 7, 현씨(玄氏)가 5, 송씨(宋氏), 조씨(趙氏)가 각(各) 4, 안씨(安氏), 양씨(梁氏)가 각(各) 3, 신씨(申氏), 오씨(吳氏), 윤씨(尹氏), 정씨(鄭氏), 부씨(夫氏)가 각(各) 2, 채씨(蔡氏), 임씨(任氏), 좌씨(左氏), 림씨(林氏), 허씨(許氏), 차씨(車氏), 정씨(丁氏), 양씨(楊氏), 변씨(邊氏), 류씨(柳氏), 제씨(際氏)가 각(各) 1명(名)씩 이었다.

이제 기능(技能)이 뛰어난 무격(巫覡)의 명단(名單)을 열거(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濟州市)	건입동(健入洞)	이 달 춘(李 達 春)	남
(男)			
"	삼도동(三徒洞)	김 오 생(金 午 生)	"
"	용담동(龍潭洞)	안 사 인(安 仕 仁)	남
(男)			
"	삼도동(三徒洞)	문 옥 순(文 玉 順)	여
(女)			
"	용담동(龍潭洞)	고 화 옥(高 花 玉)	여
(女)			
조천면(朝天面)	함덕리(咸德理)	김 만 보(金 萬 寶)	남
(男)			
조천면(朝天面)	북촌리(北村里)	박 인 주(朴 仁 株)	남
(男)			
조천면(朝天面)	조천리(朝天里)	정 주 병(鄭 周 柄)	남
(男)			
구좌면(舊左面)	세화리(細花里)	고 대 중(高 大 仲)	남
(男)			
구좌면(舊左面)	하도리(下道里)	강 봉 언(康 奉 彦)	남
(男)			
구좌면(舊左面)	한동리(韓東里)	허 정 화(許 丁 花)	남

(男)	한림읍(翰林邑)	명월리(明月里)	문재홍(文在弘)	남
(男)	대정읍(大靜邑)	하백리(下苜里)	강인수(姜仁柵)	남
(男)	서귀읍(西歸邑)	서소리(西掃里)	박생옥(朴生玉)	남
(男)	서귀읍(西歸邑)	서홍리(西烘里)	김영식(金永植)	남
(男)	표선면(表善面)	세화리(細花里)	신명옥(愼明玉)	남
(男)	표선면(表善面)	가시리(加時里)	한백(韓白)	남
(男)	성산면(城山面)	온평리(溫平里)	한기신(韓基信)	남
(女)	남원면(南元面)	남원리(南元里)	신금년(愼金年)	여
(女)	안덕면(安德面)	사계리(沙溪里)	오기출(吳己出)	여
(男)	중문면(中文面)	도순리(道順里)	조무생(趙茂生)	남
(男)	서귀읍(西歸邑)	보목리(甫木里)	홍상옥(洪相玉)	남

七, 결 어(結 語)

이상(以上) 제주도(濟州島)의 무속의례(巫俗儀禮)인 무당굿놀이의 개요(概要)를 해설(解說)하여 왔다. 이에서 보면 제주도(濟州島)의 무당굿놀이는 신(神)과 인간(人間)의 무격(巫覡)의 의례적행사(儀禮的行事)를 통(通)하여 교섭(交涉)하는 원시적(原始的) 종교주술의례(宗教呪術儀禮)임과 동시(同時)에 가(歌), 악(樂), 무(舞), 극(劇)이 미분화(未分化)한 종합예술형태(綜合藝術形態)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의 고대(古代)의 종교(宗教) 사회(社會) 예술(藝術) 등 제반(諸般) 문화의 실상(實相)을 규지(窺知)케 하는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임과 동시(同時)에 개선(改善) 발전(發展)시키면 훌륭한 민속(民俗)놀이가 될 수 있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이기도 한 것이다.

가 곡(歌曲)

시조(時調)를 담아 부르는 노래의 형태(形態)이며 만년장탄지곡(萬年長歎之曲)과 같은 것으로 오장(五章)으로 구성(構成)되며, 중여음(中餘音)·대여음(大餘音)이 끼어 초장(初章) 이장(二章) 삼장(三章) 중여음(中餘音) 사장(四章) 오장(五章) 대여음(大餘音)의 순서(順序)로 되어 있다.

거문고·가야금·피리·젓대·장구 등(等)의 관현악기(管絃樂器)의 반주(伴奏)로 연주(演奏)하였다.

우조(羽調)와 계면조(界面調)에 따라 많은 곡조(曲調)가 있고 또 남(男)·여창(女唱)의 구별과 남녀(男女)가 서로 엇바꾸어 부르는 순서(順序)가 따로 있다.

박상건(朴尙建) 박준웅(朴俊雄) 김천택(金天澤) 김수장(金壽長) 金重悅(김중열) 장우벽(張友璧) 박효관 안민영 하규일(河圭一) 등(等)과 같은 역대(歷代) 명창(名唱)에 의(依)하여 전승(傳承)되어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에 전(傳)한다.